

총장 공석 장기화... 할일 태산 같은데

공약 이행·구조조정 등 차질 불보듯 교과부, 전반적 조사 아직도 진행중

정부의 제8대 총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직무대리 체제로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적인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대는 지난 1월 21일 제8대 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 강지용(산업융합경제) 교수를 1순위 후보로 선출, 정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임용예정일이었던 5월 1일 임용을 미루고, 대신 대학에 총장 직무대리를 신청할 것을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최치규 전 교무처장이 직무대리체제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총장임용 지연 이유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대학 구성원들의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번가연(언론홍보 3) 학생은 “한달 전 총장임용지연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에 대한 후속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묻히는 것 같이 의아하다”며 “대학의 총장이 없어 빛어질 대내외적인 이미지가 실추와 실질적인 대학 운영에 차질이 올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구성원들은 대학 운영에 있어 대학의 큰 사업과 정책부분의 지체현상이 올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 직원은

“총장임용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직무대리 체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장기적인 부분 대학운영의 책임 소재가 적어 후보자가 선거에서 걸렸던 공약과 같은 큰 사업과 정책들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임용이 늦어지는 이유로 임용후보자 검증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임용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투서와 진정이 들어왔고, 그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과 함께 임용후보자에게 회신을 의뢰했으나, 당사자가 투서 및 진정 내용을 부정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총장임용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교수회는 “현재 대학은 구 대학병원건물 활용방안 마련, 법학전문대학

원 연착륙 여건조성, 대학법인화 관련 대책 강구, 발전기금 확충, 교육역량강화사업추진 등,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대학운영의 최고 책임자 공석이라는 사태는 우리에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겨 줄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또 “총장임용 준비과정과 검증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교과부가 임용을 무기한 연기시키는 것은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검증과정을 빨리 마치고 총장을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는 “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과부와 청와대 등 중앙부처의 소관”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용돼 직무대행체제가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박종건 기자



지난달 29일 학생회관 로비에 마련된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에서 학생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강보배 수습기자

‘제3창학’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다

지방분권 정책으로 로스쿨·누리 등 대형사업 실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참여정부 시절 정책들이 재평가되고 있다. 참여정부 정책들의 흔적은 제주대의 역사속에서도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분권화에 입각한 ‘지역 균형발전’ 흐름에 맞춰 제주대는 전국 20위 이내 명문대학 진입을 목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참여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시도했다.

2008년 선포된 ‘제3창학’의 기틀은 노 전 대통령과 제주대의 긴밀한 유기적 관계가 핵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이 제주대와 맺었던 주요 정책의 연(緣)을 돌아본다.

▲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법률가 출신 첫 국가 원수인 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탁상공론에 머물던 ‘사법개혁’을 현실화시켰다. 그 중 하나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다. 2007년 7월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하지만 제주대가 로스쿨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전국 법학대학이 로스쿨 유치를 위한

‘전쟁’을 벌인 것이다. 제주대를 포함한 전국 41개 대학이 로스쿨 유치 도전장을 내밀었다.

제주대는 2007년 7월 20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유치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제주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국제법 특성화 필요성’ 및 ‘지역균형발전의 정당성’ 등의 주요 논리로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눈앞에 둔 2008년 1월 15일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라는 건의문을 직접 작성, 로스쿨 유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막판 유치경쟁에 불을 지폈다.

혼선을 거듭한 로스쿨 유치경쟁에서 참여정부는 제주대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국정원칙인 ‘지역분권화’를 실현했다. 2008년 2월 4일 제주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되고, 그 해 8월 29일 제주대를 포함한 전국 25개 로스쿨 본인이 대학이 확정됐다. 2009년 3월 첫 개원을 맞은 제주대 로스쿨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 제주교대와 통합
제주교대와 제주교육대학(이하 제주교대)의 통합은 10여년 전부터 이어져온 제주사회의 ‘숙제’였다. 속제는 참여정부 의지에 의해 풀렸다. 2007년 5월 당시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주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한 통합의지를 밝혔다. 이에 제주교대와 제주교대 통합은 빠른 속도로 추진됐고, 2007년 6월 20일 제주교대와 제주교대는 통합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진통이 만만치 않았다. 제주교대 학생들과 동문회는 “충분한 논의과정 없는 통폐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잇따른 내용 속에 2007년 11월 통폐합을 위한 제주교대 구성원 투표가 이어졌고, 통폐합 ‘찬성’으로 결과가 내려졌다.

이후 제주교대와 제주교대의 통폐합을 위한 통합지원서가 교육부에 제출됐고, 최종 통합이 승인됨으로써 2008년 3월 ‘통합 제주대학교’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영운 특별기자

인기직업 1위는 공무원... ‘경제적 안정 중요’

직업능력개발원, 신입생 2041명 설문조사

우리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진학 목적이 학문연구 보다 취직 등 장래준비 위주로 바뀌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직업능력개발원이 매년 실시해오는 신입생 상대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지난 2월 실시된 올해 조사에서는 2041명이 응답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진학의 목적에 대해 신입생들 중 51.0%가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라고 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28.2%)나 ‘부모나 주위의 권유에 의해’(14.1%)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졸업 후의 진로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28.9%)과 ‘교사’(14.2%)가 1, 2위를 차지, 최근의 고용환경에 대한 불안 심리를 반영했다.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이 25.0%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의 능력 발휘’(17.4%), ‘취미·여가 생활’(16.3%), ‘좋은 인간관계 형성’(13.3%)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생활을 위한 기초’(53.5%)를 1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교양을 갖춘 지성인’

(24.6%),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7.6%)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대학생활에서 하고 싶은 일의 경우 ‘폭넓은 대인 관계형성’이 31.6%, ‘전공공부’ 28.8%, ‘다양한 사회경험’이 13.4%를 차지했다.

한편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해박한 지식전달’(21.2%)에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진로지도’(19.5%), ‘인생관에 대한 조언’(13.2%), ‘인간적인 유대관계’(12.3%)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복 대기자

아라대동제 9월 이후 연기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예정됐던 아라대동제가 다음 학기로 미뤄졌다. 이는 지난달 23일 노무현 전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따른 추모분위기에 대학도 함께 동조하고자 결정된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적인 추모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노무현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치러지게 됐다. 특히 축제 물결 날로 예정됐던 29일이 영결식 날짜로 정해지면서 대학 구성원들이 축제를 본 일정보다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25일 오전 중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에 중앙운영위원회는 축제를 2학기로 연기하는 것을 결정했으며, 국가적인 추모 분위기를 감안해 학생회관 1층에 학내 분향소를 마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학생 전공 커리어(Career) 개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의사가 있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하계 방학기간 중 전공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생 전공 커리어(Career) 개발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명칭 : 대학생 전공 커리어(Career) 개발 사업
- 사업기간 : 2009. 6월 ~ 8월(* 2개월간 보수지급)
- 모집기간 : 2009. 6. 2. ~ 6. 11.(10일간)
- 모집인원 : 150명(*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도내 대학 재학생)로 소정의 심사를 거친 자
*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신청 배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 중이거나 중도포기자
 - 신청일 현재 기타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 예 :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등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된 자
- 참여방법 : 개인, 학과, 동아리 단위로 신청 가능
* 학과 단위 또는 동아리 단위 신청시 불임 활동계획서 제출
학과 단위(동아리) 신청시 신청서류,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 개인과 동일 조건
- 신청서류
 - ① 개인 신청자 : 희망근로 참여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② 단체 신청자(학과, 동아리 등) : 【붙임 1】 사업계획서 + ①항 개인 신청자 서류 첨부
* 희망근로 참여 신청서 : 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 란에서 서식 다운로드

- 근무 조건 : 주 5일, 1일 8시간, 임금 1일 33,000원(월급여의 30%는 상품권으로 지급)
4대보험 가입(사업주 부담금 지원), 주/월차 유급휴가 적용, 간식비/교통비 별도지원
- 사업내용 : 대학생 전공 Career 개발 사업(* 신청서 희망사업 유형 참조)
- 접수처 : 소정의 서류를 갖추고 재학중인 대학별 취업 담당부서에 신청
 - ◎ 제주대학교 : 직업능력개발원 ◎ 탐라대학교 : 교학처(학생팀)
 - ◎ 관광대학 : 취업지원센터 ◎ 산업정보대학 : 종합인력개발센터
 - ◎ 한라대학 : 종합인력개발센터
- 선발절차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선발
 - 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 후 계획인원 범위내에서 순차적 선발
 - ② 학과 또는 동아리 단위(활동 계획서 첨부) 신청시 계획인원 범위내에서 우선 선발 (* 이 경우도 구성원이 신청 배제 대상이 아닌 자이어야 함)
* 신청 사업에 대한 수요처가 없거나 신청에 비해서 수요처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수요처와의 연계 및 신청인원 등을 감안하여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 선발결과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게재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과(Tel : 064-710-6236~9)

아시아권 교류수학에 토익성적 요구 재고해야

토익 기준 철폐해야... “일정 성적 이상에 자격부여는 당연”

아시아권역으로 교류수학을 준비 중인 일부 학과 학생들이 지난 2008년 개정된 교환학생 토의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류수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은 아시아 권역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할 경우,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대학에서는 자격기준으로 토익점수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국제교류센터는 영어권을 제외한 교환학생의 토익기준을 600점 이상으로 기본자격을 지정했다. 이 기준은 ‘2009/2010 중국정부장학생 선발기준’에 나와 있는 TEPS 혹은 TOEFL이 필수 제출 서류로 적용되었고 일본정부도 토익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를 참고로 우리학생들의 성공적인 교환학생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토익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시아권을 전공으로

공부중인 중어중문학과나 일본학과 학생들은 교류대학 전공학점을 이수하려 가는 것은 맞지만 교환학생선발 기준에 맞추기 위해 토익까지 공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모학생은 “중문학과 학생들이 이번 교환학생선발 토의기준 때문에 휴학을 한 경우가 많다”며 “우리대학에 들어오는 외국인 교환학생들은 한국어 실력이 없어도 받아주는 반면 우리대학의 경우 교류수학에 불필요한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미달되면 아예 공부할 기회를 박탈한다”고 말했다.

또 인문대학 일본학과 모학생은 “글로벌 시대에 토익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교환학생 자격기준에 토익기준을 넣는다면 일본어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우리에게 불리하다”며

“일본어 하나도 공부하기 벅찬 상황에서 교환학생 자격을 얻기 위해 토익까지 공부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대에서 외국인 교환학생을 받는 기준은 없으며 한국어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외국인 교환학생을 받고있는 이유는 우리 대학에 개설된 한국어 강좌를 듣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오는 교환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 대학의 경우, 서울대는 교환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점 2.7 이상에 학점 차가 0.1점 미만일 시에만 지원 및 토익성적을 참조하고 있다. 부산대는 각각 교류대학 국가의 외국어능력을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동덕여대 또한 해당 국가의 언어능력이 일정 수준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며, 전북대는 해당 언어로 수학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선출하고 있다.

중문학과 모교수는 “중국 교환

학생은 영어가 그리 필요치 않은데도 갑자기 토익을 기본자격으로 해놓는 것은 지금 당장 무리가 따른다”며 “우리도 1학년 학생들에게는 토익·토플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2-3학년들에게 토익토플을 당장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박전홍(수의학과 교수) 국제교류센터장은 “일본이나 중국 정부에서는 토익과 토플성적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제주대에서 학생들이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면서 “학생들이 어학연수와 교환학생을 혼동하는 것 같은데 교환학생은 전공을 듣고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공부할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업수행 면에서 토익기준을 적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문정화 수습기자

제주에서 첫 일본식 만담 라쿠고 공연

일본국 총영사관 · 일어일문학과 공동주최



지난달 26일 법정대중강당에서 열린 긴페이씨의 라쿠고 공연 중 행동과 표정, 몸짓만으로 표현되는 연극이 진행되고 있다.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들어라” 쇼후쿠테이 긴페이씨의 한국어 라쿠고 공연이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및 일어일문학과 주최로 지난달 26일 법정대중강당에서 열렸다.

제일교보 3세인 긴페이씨는 오사카에 있는 라쿠고 중 한명으로 한국어로 라쿠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일본의 만담이라고 하는 라쿠고는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일본 전통예능 중 하나이다. 라쿠고 공연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한사람이 여러명의 역할을 맡아 연기한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그는 “라쿠고가 관객의 상상력에 따라 무엇

이든지 될 수 있다”며 뜨거운 우동이나 고구마를 진짜로 먹는 듯한 행동을 표정과 몸짓으로 나타냈다. 무대에서 그는 보통 연극과는 다르게 일본의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부채와 손수건만 가지고 방석위에 앉아 다양한 목소리와 얼굴표정을 바꾸며 연기를 했다.

본 공연에서는 ‘개논’이라는 주제의 한국어 만담과 ‘숙제’라는 주제의 일본어 공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공연 주제인 ‘개논’은 개를 사람에 비유해 눈에 이상 생겨 병원을 다니며 생긴 에피소드다. 두 번째로 소개된 ‘숙제’는 전부 일본어로 진행되어 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만담이었다.

공연에 마친 그는 “어렸을 적부터 재미있는 얘기를 좋아했던 것이 라쿠고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며 “한국어를 전혀 못했었지만 한국인인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도연 수습기자

캠퍼스 에너지절약

관리계획 마련

하절기를 맞아 시설과가 캠퍼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대 전력 관리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계획은 하절기 동안 급증하는 냉난방 수요를 사전에 감안, 원활한 학내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시설과는 하절기 냉방기의 과다사용으로 전력공급이 중단, 정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냉방기 가동시 최대전력 관리를 위한 순차적 전기차단을 시행한다. 우선 전력사용량이 최대치를 초과한 경우 냉난방 기기가 설치된 건물들의 전력부터 시작해 본부·단과대별 통제 가능한 시설물, 경상대 2호관 흡수실 냉온수기, 터보 냉동기가 설치된 건물 순서이다.

시설과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별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선풍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행정 사무용 기기는 절전형으로 구매를 추진하고, 불필요한 전등 끄기 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정화 수습기자

직업능력개발원 자료실 컴퓨터 관리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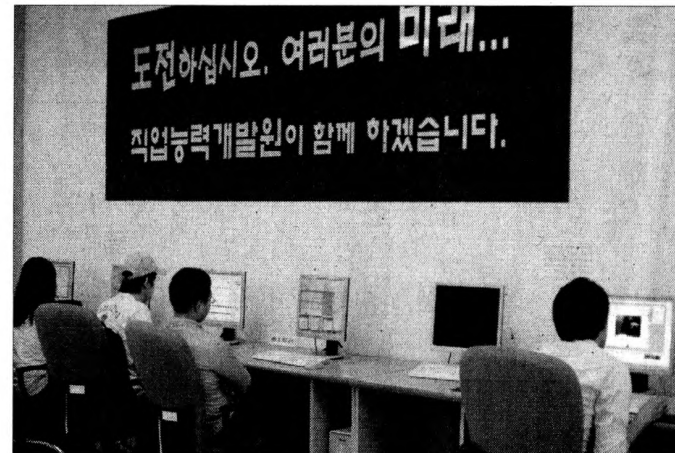
웹서핑·미니홈피 이용 등 방치

직능원을 찾았던 한 학생이 축구 동영상 시청, 쇼핑, 미니홈피 관리 등을 즐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자리를 찾기 못하고 발걸음을 돌린다. 무분별한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된 듯한 모습이다. 컴퓨터 앞에 ‘취업관련자료 검색용 PC’이므로 쇼핑, 게임 등의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의미의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편의사용은 계속된다.

학생들의 취업전략을 위해 만들어진 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 내 정보검색대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학생들의 그릇된 사용과 관리 부족으로 인해 직업 및 취업자료 검색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검색대는 지난 2005년도 9월 취업정보 검색을 위해 조성됐다. 그러나 검색대가 운영된 지 4년째인 현재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리포트와 학사정보 검색을 위해 직능원을 찾았다는 사범대학 한 학생은 “나 또한 직업검색을 위해 찾은 것은 아니지만 리포트나 학사정보 검색 또한 취업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솔직히 미니홈피



지난 1일 직업능력개발원 ‘취업관련자료 검색용 PC’에서 학생들이 웹서핑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자의 제재는 없다.

관리를 하거나 쇼핑하는 사람들을 보면 관리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컴퓨터 사용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던 한 학생은 “가끔씩 와서 사적으로 이용하곤 했지만 특별한 제재를 받아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직능원 관계자는 “틈틈이 돌아보며 제지를 하고 있지만 돌아서는 순간부터 다시 계속되고 있다”며 “계속 지켜서 감시할 수 없으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프린터

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취업관련 정보가 아닌 리포트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제지하고 있다”며 “프린터 관리를 하는 근로 학생이 이따금씩 정보검색대도 돌러본다”고 했다.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스펙 쌓기’와 ‘정보전쟁’에 여념이 없다. 이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원이 개관되었고 정보검색대도 설치됐다. 게임, 축구동영상, 웹서핑을 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찾는 의식적인 학생들의 사용과 직능원 내부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현숙 수습기자

“자신과 세상을 잇는 책 속으로 빠져라”

‘과학콘서트’ 저자 정재승 교수 문화광장 특강

정재승 교수(KAIST)가 ‘너, 로봇을 만나다’를 주제로 지난 28일 법정대중강당에서 문화광장특강을 가졌다. 정 교수는 2001년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연구교수, 2005년 콜롬비아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는 약 200명 가량의 학생이 참석했다. 정 교수는 강연이 진행되는 내내 학생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소통했다. 정 교수는 “이렇게 집중하고, 열중하는, 초동초롱한 학생들이 많아서 감사하다”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인상적이었고, 자주 오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는 “21세기에

들어 분야간 벽이 허물어지고 있으니, 자신이 전공하지 않는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학생들이 세상을 바뀌어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이 전공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한 책을 최대한 많이 읽어라”면서 “책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해당 분야의 사람들과 많은 토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서로는 교양도서로 유명한 ‘과학콘서트’,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영화 속 과학 학교’, ‘도전 무한지식’,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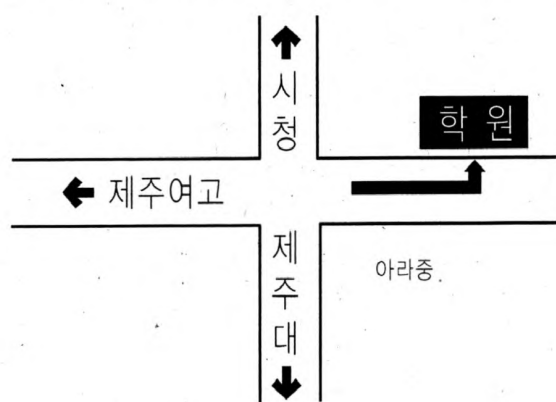
없다면!’ 등이 있다. 현재 동아일보에 소설과 김탁환과 함께 ‘눈 먼 시계공’을 연재중이다.

김로마나 수습기자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취업원서 없는 취업설명회 한산

지난달 26일 아라뮤즈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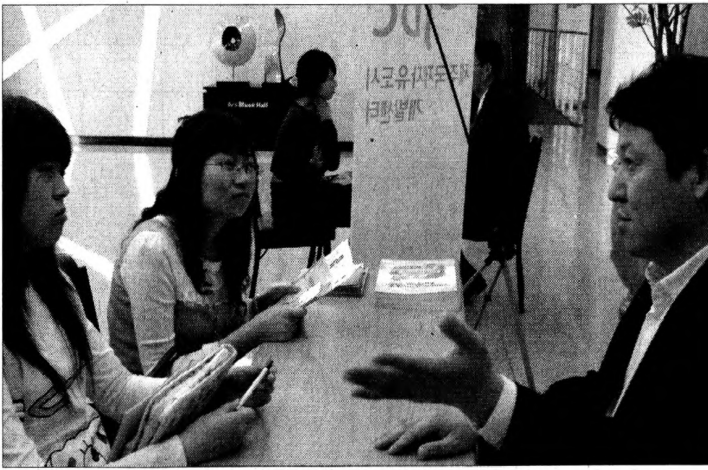
‘일만아라와 함께하는 2009 취업설명회’가 지난달 26일 총학생회와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의 주최로 아라뮤즈홀에서 열렸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다양한 취업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지만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취업설명회에서는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 명복을 기원하는 애도 묵념이 진행됐으며, 농업을 비롯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가 참여한 기업 설명회와 취업의 방향성을 찾기 못하는 학생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위한 강연으로 구성됐다.

기업 설명회에서는 기업 소개를 비롯해 취업 자격요건과 일정, 방식에 관해 소개 됐다. 또 휴식시간에는 적성검사를 비롯해 취업과 관련한 검사와 참여 기업의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강연에서는 김미란(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 직원)씨가 취업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전



지난달 26일 아라뮤즈홀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서 학생들이 강연 중 쉬는시간을 이용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했다. 김씨는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며 “꿈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형곤(GNS컨설팅 대표이사)씨는 중소기업 이해 및 창업에 대하여 강연을 진행했다. 이씨는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좋아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휴식시간이 지난 후 설

명회에 참여한 상당수 학생들이 자리를 비웠다.

한 학생은 “취업 설명회 앞에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뒤에 이루어진 강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었다면 끝까지 참여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강보배 수습기자

화재·재난대비 시설물 ‘불량’

시설과 학내 15곳 점검

화재·재난대비 시설물 안전점검결과 대학 내 안전관리와 에너지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 인해 대학 시설물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학교수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달 18일 시설과는 학내 건물 15곳의 화재·재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화재예방과 에너지 절약의식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점검이 실시됐다.

점검은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전기장판 및 전기난로와 침구류, 실내용가스 등 여러 취사도구들과 강의실 및 연구·실험실 등의 퇴근시 미소등 실패, 보안관리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점검내용의 결과 위와 같은 관리들이 모

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 내에서는 화재·재난 취사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방화인적관리’ 실무집에도 위와 같은 사용금지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시설과 관계자는 “점검을 하면서 사람이 없는 강의실과 열람실에 불이 켜져 있고, 복도와 실험실 컴퓨터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며 “학생들이 시설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할만큼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점검결과 학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됐으며 점검결과 조치방안은 별도로 통보해 놓은 상태이다. 이번 야간점검은 올해 들어 두 번째이며 이번달 중에 불시점검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문정화 수습기자

바로잡습니다

지난 817호 10면 <제주대 출신 제주대 교수들 만나다> 기획에서 표기된 강영주 교수님의 소속학과 ‘식품영양공학과’는 ‘식품생명공학과’의 오타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방치된 산책로... 일부 시설물은 흉물로

조명시설 불량에다 운동시설 파손 상태 심각

신입생 학교소개때 산책로 알려주길

우리대학 산책로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관리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산책로는 대학구성원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성됐다. 당초 대학캠퍼스 전체를 돌 수 있는 코스로 계획했지만, 예산과 실효성 면을 고려해 현재 구간만 조성된 상태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산책로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산책로 정상에 위치한 운동시설 중 일부는 파손돼 있어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또한 일부 운동시설은 활용이 전혀 안돼 녹슬거나 거미줄이 쳐져 있어 흉물스런 분위기를 연출했다.

조명시설도 문제였다. 조명시설이 약 100m마다 세워져 있고 일부 시설은 고장난 채 꺼져 있어 산책로를 충분히 비추지 못해 산책하기에 불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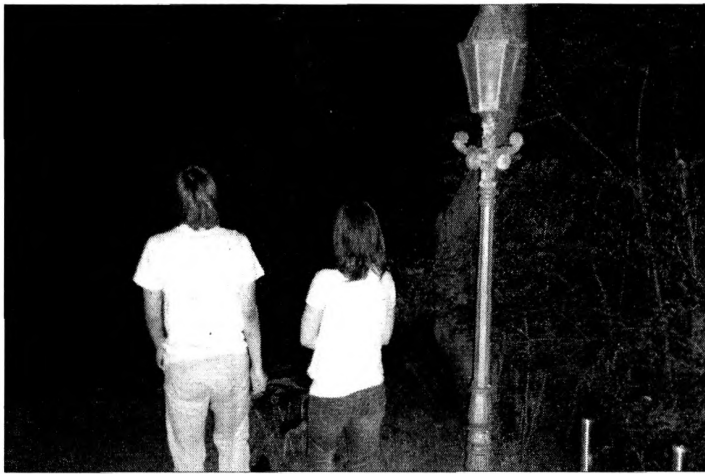
이렇게 산책로가 활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홍보부족으로 꼽힌다. 산책로 입구에 안내표지판

이 설치 돼있지 않아 이곳이 산책로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대학 홈페이지나 대학 내 캠퍼스안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김한울(정치외교 1)학생은 "대운동장 및 글로벌하우스를 이용했지만 여태까지 우리학교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며 "산책로가 본관 앞에 있는 뱃길 밖에 없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산책로 주변 건물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또다른 원인이다. 대운동장 스탠드에 위치한 동아리의 활동이 활발했을 당시 동아리원들이 산책로를 활발히 이용했다. 또 과거 의과대학 건물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1호관에 있을 당시에도 의대생들이 주로 산책로를 이용했다.

우리학교 환경미화원 모씨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지만 안지 별로 되지는 않았다"며 "점심식사 후 소화도 시킬 겸 산책로를 이용하는 편인데 공기도 좋고 휴식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아는사람만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이용을 하지 않



지난달 26일 늦은 저녁 산책로에서 학생들이 산책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파손된 가로등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것 같다"며 "학교측의 홍보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설과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하고 재정비할 것이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시설물보수신청 게시판에 올려주면 바로 확인하고 고치니 대학 구성원들이 게시판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학교에서는 학내 문화생활공간 부족문제와 휴식공간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책로를 이용한 새로운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3학년 모 학생은 "우리대학 안에 이런 좋은 시설을 방치해 두지 말고 우리학교 미술학과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것도 좋은 활용방안인 것 같다"며 또 "이런 좋은 곳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학교탐방을 하면서 알리는 것도 좋은 활용방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도연 수습기자

57주년 개교기념식 아라뮤즈홀서 거행

김태보 교수 등 12명 30년 근속

허남춘 교수 등 19명 최우수교원

개교 제57주년 기념식이 지난 26일 아라뮤즈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치규 총장 직무대리, 부만근 전 총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식순에 따라 학사보고와 기념사, 축하 낭독이 진행됐으며 표창장 및 공로패·감사패 수여가 이어졌다.

공로패는 20년·30년 장기근속 교직원에게, 감사패는 유공인사들에게 수여됐다. 또 2008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결과 단과대학별로 최우수 교수로 선정된 교수에 대한 표창과 우수 교사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또 (주)한라산 현승탁 대표이사(「(주)한라산 기금」)으로 2009년도 우수교수 및 우수 학생에게 연구기금 증서 및 장학기금 증서를 전달했다. 우수교수에 대한 연구기금은 500만원으로,

‘2009년도 학술연구지원 공모 연구과제사업’ 대상자 선정이 현재 진행 중인 관계로 주관부서인 산학협력단에 전달했다. 우수학생 장학기금 증서는 영어 및 일본어, 중국어 능력 우수학생 총 27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전달됐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달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명복을 기원하는 애도 묵념이 진행됐으며, 수상자에게 전달할 꽃다발도 행사가 종료된 후 개별적으로 전달하도록 안내됐다.

다음은 이날 공로패 및 표창장, 감사패 수여 명단.

△30년 근속 공로패=김태보 경상대학 교수, 하진환 공과대학 교수, 김영용 교육대학 교수, 김태일 학생처, 서기관, 양대옥 중앙도서관 사서사무원, 서윤진 중앙도서관 사서주사, 오성중 중앙도서관

사서주사, 고상선 교육대학 시설주사, 김경순 직업능력개발원 직원, 김미란 사무국 직원, 현차림 종합서비스센터 직원, 김신호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 직원

△20년 근속 공로패=김성준 법정대학 교수, 현해남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 허철구 해양과학대학 교수, 양양한 자연과학대학 교수, 김철수 자연과학대학 교수, 현명택 공과대학 교수, 안기중 공과대학 교수, 도양희 공과대학 교수, 고영환 공과대학 교수, 김중우 교육대학 교수, 변종철 자연과학대학 교수, 고승우 사무국 공업주사, 오종은 사무국 공업주사, 강봉근 생명자원과학대학 농업주사, 김기홍 생명자원과학대학 농업주사, 한진규 해양과학대학 해양수산주사, 사보, 양광호 정보통신원 직원, 윤상돈 사무국 직원, 양철영 사무국 직원, 고이현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직원, 정재진 사무국 직원, 양연심 인문대학 직원, 김인선 해양과학대학 직원

△2학기 강의평가 최우수교원 표창=허남춘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진희 관광개발학과 교수, 김문철 생명공학부 교수, 강창희 화학과 교수, 문건 통신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창근 법학부 교수, 이영돈 해양과학연구소 교수, 심순섭 의학과 교수, 황경수 행정학과 교수, 강봉수 윤리교육과 교수, 박상열 토목공학과 교수, 김홍수 통신컴퓨터공학부 교수, 윤영민 수의학과 교수, 남사웅 체육학부 교수, 신애경 초등교육과 교수, 남광우 의학과 교수, 박재모 관광개발학과 강사, 부희정 화학과 강사, 김희석 수의학과 강사

△우수교사 표창장=정영금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교사, 박종승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사, 강치영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 △대학발전 유공인사 감사패=오태홍 제주대학교 기성회이사, 홍승길 교육대학 기성회회장 △대학발전기금 유공인사 감사패=정문철 KT제주법인사업단 단장, 전인학 테디벨리폴프앤리조트 대표이사, 전유진 해양의생명과학부 교수, 김희석 전 수의과대학 교수

고용희 수습기자

■ 화제의 인물 - 고진석 동문(에너지공 92학번) ■

“핵융합 이론 분야 세계최고 되겠다”

고진석 동문, 미 MIT대에서 박사학위 취득

재정환 인재들이 모여드는 세계최고의 명문대에서 우리대학 출신 동문이 핵공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고진석(36·에너지공학과 92학번) 동문은 오는 5월 미국 명문 대학인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핵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지난 1999년 2월 에너지공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고 동문은 지난 2003년 미국 핵융합 연구의 본산인 MIT대 원자핵공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최근 박사논문심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고 동문의 전공분야는 핵융합 기술, 특히 핵융합 플라즈마(plasma) 내부의 다양한 물리현상과 나선허 자기장 측정 연구는 그의 중심연구테마의 하나다.

고 동문은 이날 ‘MSE 계측법을 이용한 Alcator C-Mod 핵융합로 전류분포 측정’을 주제로 핵공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그는 논문에서 섬세 수천도에서 수만도까지 올라가는 핵융합로에서 플라즈마를 형성할 때 이를 자기장으로 제어하는데, 안정적으로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방안과 이때 발생하는 각각의 플라즈마 자기장의 내부구조를 측정·분석했다. 자기장의 내부 구조는 플라즈마 전류의 내부 구조를 비롯해 다른 많은 물성치를 산출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며 궁극적으로는 핵융합 반응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안정된 플라즈마의 발생 및 제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플라즈마는 전하를 띤 입자인 전자와 이온이 중성자와 섞여 있는 것으로 흔히 제4의 물질상태라고 일컬어진다. 과학자들은 기체를 섬세 수만도 이상으로 가열해, 원자나 분자사이의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도록 핵 원자를 구성하고 있던 전자가 튕기면서 플라즈마 상태가 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가볍고 튼튼한 합금이나 순도 높은 기체를 만들듯이 플라즈마를 만들어 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플라즈마가 ‘21세기 꿈의 에너지’로 평가받는 핵융합발전을 비롯, 우주선의 추진로, 오염물질의 제거 등에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 93년 플라즈마를 이용한 핵융합으로 3백만도의 전력을 생산했



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산업 응용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고 동문은 이 분야에서 안정적인 플라즈마의 생성과 유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가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에너지공학과 이현주 교수 연구실에서 핵융합과 플라즈마에 대해 공부할 때였다. 이후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고, 핵융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 MIT에서의 박사과정을 결심하게 됐다.

고 동문은 졸업과 동시에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 물리학과 핵융합 그룹에서 박사후 과정으로 유사한 계측장치들을 이용한 연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그의 인생의 좌우명은 ‘세계 최고가 되자’. 제주대 동문으로서 언제나가는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일꾼이 될 것임을 결심했다고 한다. “외국 대학이나 교수들은 어느 출신보다 현재의 연구 성과와 태도로 학생들을 평가한다”는 그는 “MIT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핵융합 기술 연구에서 앞서 나가고 더 크게는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영복 대기자

제주넙치를 글로벌 브랜드로

3년간 41억 투입 일류 상품 육성

‘세계일류상품 제주넙치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사업단장 해양과학연구소 이영돈 교수)’이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2009년 지역연구사업(RIS) 육성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사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역평가와 중앙심사를 거쳐 2009년 지역연구사업(RIS) 육성사업 신규사업으로 지난달 최종

선정됐다.

제주넙치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이 우수과제로 평가되면서 당초 국비 24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증액된 25억5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3년간 국비 25억5000만원, 도비 4억8000만원, 민자 11억4000만원, 총 41억7000만원을 투자해 지식경제부가 인정한 제주넙치를 활용해 2·3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넙치 양식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시장육성을 위해 산, 학, 관 네트워크를 구축과 넙치를 활용한 식품소재, 조미료, 향신료, 향장품 등의 식료품 개발, 넙치캐릭터 개발, 마케팅지원사업을 통해 제주넙치의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이다.

강보배 수습기자

여교수회, 양성평등 세미나 열어

전 국회의원이자 현 한국외국어대 이은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성, 언제 한국사회의 주류에 편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달 28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연을 열었다.

오후 4시부터 한시간반동안 진

행된 이번 특강은 우리학교 여교수회(회장 박경란 통역대학원 한영과 교수)주최로 우리 여성이 미래의 여성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강연에서 이 교수는 “자기가 마

땅히 해야 할 직책이나 임무 따위가 본보기가 되는 대상인 롤 모델을 만들어야한다”며 “두 번째로는 여성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도연 수습기자

해외플랜트건설기술

인력양성과정생 모집

국토해양부와 건설기술교육원이 해외플랜트부문 인재육성양성을 위한 ‘대학생 해외플랜트 건설기술인력 양성과정’ 취업교육학생 47생을 오는 17일 오후 6시 반까지 모집한다.

정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 과정은 플랜트관련학과 4년제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플랜트관련 기본적인 취업지원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플랜트관련학과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전자, 금속, 화공, 원자력공학 등을 말한다.

이번 교육을 받게 될 47생은 6월29일부터 8월 28일 9주간에 걸쳐 교육받게 된다.

교육장소는 인천본원, 서울본

원 두 곳에서 이루어지며 교육지원자격은 전학년 평균 B학점에 TOEIC 750점 이상인학생이다. 신청자는 참가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경력자격을 등 다양한 서류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육을 받게 되면 건설기술교육원장 수료증과 수도권 주요대학 학점인정 등 다양한 교육특권이 있다. 모집마감일은 19일이고 건설기술교육원(ha.kicte.or.kr)홈페이지 공지 및 SMS를 통해 합격자 발표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본원(032)-4600-132 또는 서울본원(02)565-0162로 하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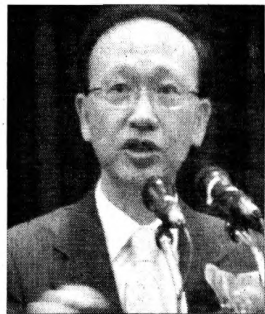
현익택 통일부장관 강연

“개성공단 문제 대화와 협상이 필요”

제주출신 현익택 통일부장관이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를 주제로 지난달 21일 법정부 대강당에서 특강을 열었다.

제주대평화연구소와 제주통일교육센터, 2단계 BK21 제주평화연구협력육성사업팀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특강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 전략을 설명하고 현재 악화된 남북관계 원인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이뤄졌다.

현 장관은 강연에서 북한에 억



류된 우리 근로자의 석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근로자를 즉각 석방하는 길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현재의 개성공단 문제는 정부와 북한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

김도연 수습기자

대학생중기해외봉사단 모집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이하 대사회)가 대학생 중기 해외봉사단을 오는 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해외봉사는 대학생들의 폭넓은 국제관계 이해와 자기개발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또 과전국별로 학생들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돼 있다.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이번 봉사단 모집은 53명이며, 대사회 회원 대학인 제주대에서도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2명까지 추천신청 가능하다.

이번 봉사단은 9개국(태국,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인도, 네덜, 파라과이) 13개팀(지역별 배정)으로 나뉘어 파견된다. 봉사단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7-8월 중 출국해 내년 1월까지 약 6개월간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참가신청은 참가신청서, 성실서약서 등의 제출서류들을 챙겨 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하면 된다. 제출서류들은 제주대홈페이지 아래광주 제주대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숙 수습기자

【 제29회 백록문학상 】

시부문 가작

방 랑

김성룡 지리교육4

타클라마칸 사막의
들쥐 소굴을 훑어내고 온
스산한 바람이 내안의 첩바퀴를 돌려댄다

팔랑거리는 이 내 마음은
어느 시인의 물결에 저는 나비인가
깃털이 부러진 돛단배의 닻인가
작은 암초에도 부서지는 포말인가

바람칼에 할퀴어진 후줄근한 말의 눈동자
흐르는 붉은 알갱이 속
밀려오는 허허로움

살아 무겁고 어두워
강바닥 깊이 아련하게 흐르는
눈물의 돌덩이여
오아시스 없는 사막을 건너는 순례자의 바람이 이러한가
여백으로 비어가는 오롯한 전율

어디다 두어야하나.
마침표를 찍는 게 이리도 가슴 아픈 일인가

일러스트 허 승 특별기자

시 심사평

여러 요소들의 유기적인 조화에 관심을

김병택 문학평론가
(국어국문학과 교수)나기철 시인
(신성여고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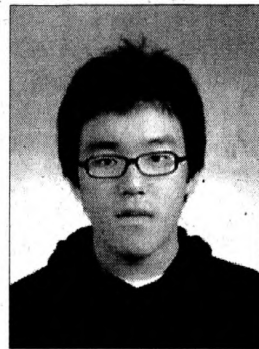
좋은 문학 작품은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에 탄생된다. 그러한 문학 작품은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시에서도,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일, 예를 들어, 리듬과 작품 속의 다른 요소들인 이미지·분위기·주제·어조·낱말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올해의 응모작은 총 73편이다. 최종 심사 대상에 오른 작품은 4편인데, 이제 그 4편에 대해 잠시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졸업반』은 화자의 심리를 잘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 어상의 시적 깊이를 보여주지

는 못했다. 『벗나무』는 의도적으로 비유적 상징이라는 높은 차원의 기교를 구사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객관화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겨울과 봄 사이』는 아주 좋은 틀을 갖추고 있지만, 이야기의 허술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주제가 뚜렷하지 않았다. 『방랑』은 화자의 미세한 심리적 움직임을 잘 표현했다. 그러나 의문형 종결어미의 과도한 사용은 이 시의 시적 진술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다.

숙의 끝에, 우리는 비교적 장점이 돋보이는 『방랑』을 (당선작이 아닌) 가작으로 뽑는 데에 합의했다. 아울러, 이 작품을 가작으로 뽑는 의도 속에는, 무엇보다도 더욱 더 정진하기를 바라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입상자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낙선자들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심소감



김성룡 지리교육4

가끔 마음을 비운다. 그리고는 몇 글자를 적어 보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처음으로 공모했던 글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정말 부끄럽다.

시라는 것은 나에게 참 매력적

인 존재다. 한 글자 한 글자를 토해 내기 위해 부단히 내 머리와 마음은 하나가 되려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치열하게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해야 하며 그것을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그 작업에서 희열을 느낀다.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

더욱더 정진하라는 의미에서 높이 평가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 어떤 시가 좋은 시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시는 윤석산 선생님, 그리고 항상 저희를 걱정해주시는 지리교육 교수님들과 우리 사회교육 동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소설부문 가작

위대한 하루

양미혜 행정4

- 때가 되면 알겠지 -

“집합”

더그대(천장과 지붕사이에 있는 공간)에 모여 있는 수백(數百)의 어린 바퀴들이 일제히 한 곳을 바라본다. 빨리 줄을 맞춰 모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곳으로 모여야 한다.

샤샤샤-

성숙한 한 바퀴가 단상 위에 올라 서 있다.

우리는 그를 엄마라고 부른다. 다른 종에서 부르는 사랑과 정이 있는 그런 의미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어린 바퀴를 돌보는 성숙한 바퀴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 엄마의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하다. 우리를 돌봄과 함께 교육도 맡고 있기도 하고, 우리 수백(數百)의 어린바퀴가 모여 사는 이곳, 부엌 위 더그대의 질서를 지켜주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의 실질적인 엄마는 어디에 있는나고? 사실 모른다. 그냥 여기에 있는 어린바퀴들은 그런 존재가 있구나 한가. 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린바퀴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나처럼 생각이 깨어있는 몇몇 바퀴들은 다른 종에서 그런 존재가 있으니 우리도 있겠

거니 유추해 보는 것이다. 솔직히 엄마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어쩌면 저 단상 위에 있는 엄마가 ‘실제’ 우리 엄마일지도 전에 이곳까지 식량 구하러온 일개미를 만난 적이 있었다.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는 지엄하신 여왕개미가 자기 엄마란다. 개미왕국의 질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르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여튼 여기 있는 (나를 포함)어린 바퀴들은 자기에게 엄마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조차 모른다. 그냥 지나가는 성숙한 바퀴에게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말씀해주세요?’ 하고 물어보면 대개 ‘엄마라는 존재가 너를 낳자마자 우리와 같이 공존하며 살고 있는 표면적 주인인 인간에 의해 죽었다’ 라든가, ‘엄마라는 존재가 너를 낳기 딱 그 직전! 바로 그 직전에 인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 자기 살기 바빠 너를 낳고 도망갔다’ 라든가, ‘솔직히 누가 누구 자식이고, 누가 누구의 엄마인지 몰라 그냥 한꺼번에 양육한다.’ 라는 대답과 함께 ‘크면 저절로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이 일로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말라’ 라는 말만 남기고는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었다. 어쨌든 내가 성숙한 바퀴가 될 때까지 그냥 궁금해도 물어두기로 했다.

“집합”

실제 엄마 일지도 모를 우리의 성숙한 바퀴인 ‘엄마’의 부름에 모여 있다. 그리고 그를 우러러본다.

“어제 단독으로 우리가 있는 이곳 밑을 내려가려고 하는 어린 바퀴가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그때침 그 밑으로 내려가려던 성숙한 바퀴에게 걸려 내려가지 못하고 나에게 불들려왔다. 이 일은 내가 미리 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생긴 내 불찰이니, 어제는 그냥 넘어갔지만, 오늘부터 수박향이 진동하는 날이 올 때까진 단독으로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숙한 바퀴가 되는 수박향이 진동하는 날, 그 때가 되면 그 때부터는 너희 맘대로 다녀도 된다.”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웅성웅성 되기 시작한다.

“그날이 언제일까?”,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 말했던 그 쥐똥 냄새보다 덜하겠지?’, ‘아니야. 더 지독할 수도 있지. 더 지독해야 말을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저런 추측이 난무하는 사이에 어린 바퀴하나가 “때가 되면 알겠지.” 한다. 1.2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모두들 그 말에 매료되었는지 ‘그래. 때가 되면 알겠

지.’ 한다. 그리고 나도 속으로 ‘첵! 하면서 그래 때가 되면 알겠지. 한다.

- 실질적 주인은 우리! -

“조용!”

웅성웅성 소리에 묻힌다. 다시 한번 엄마가 웅성웅성 되는 소리를 잡으려고 힘주어 말한다.

“조용!”

“그래서... 너희들은 성숙한 바퀴가 되기 위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가르침을 게을리 배워서 안 된다. 너희가 성숙한 바퀴가 될 때까지 배우게 될 것들은 나중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오늘의 배움은 ‘우리의 표면적 주인인 인간’에 대한 것이다.

엄마가 말씀하신다.

우리는 표면적 주인인 인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집 터에 살았었다. 그래서 실질적 주인은 바로 우리라는 것. 어느 순간, 인간이 사는 집이 되더니 이제 그들은 공존하며 살고 있다. 그래도 실질적 주인은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얹혀사는 인간 주제에 주인 행세하는 것은 못마땅하냐.(엄마는 이때 감정이 격해졌다. 스스로도 느꼈는지 맘을 가다듬는다.) 음... 여하튼 우리는 그들과 공존하며 살고 있으니 그들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한다.

인간은 머리, 몸, 다리, 팔 이렇게 나뉜다. 머리에는 특이한 것이 더듬이가 없다. 그리고 다리도 둘, 팔도 둘, 이것도 좀 특이한 것이 팔에는 손이라는 게 있다. 이 손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을 유용하게 쓰이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부분 자체가 우릴 죽일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다.

인간도 말을 한다. 이제까지 인간의 소리를 주욱 들어서 알겠지만, 그들의 말은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들의 말을 궁금해 한 우리 조상들 중 몇몇은 그 말을 공부했고, 그 말을 공부한 이 중 살아남은 바퀴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공존하며 살되,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너희들도 그들의 말이 궁금할 테지만, 그냥 시끄러운 소리려니 해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집에서 경계해야 될 대상을 위협도 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 집 인간은 총 다섯이다.

경계대상 1. 이 집에서 더듬이가 없는 머리 부분이 뾰글뾰글하고 체구가 제일 작은 이 인간이 제일 위험하다. 왜 제일 작은 인간이 제일 위험합니까? 하고 물을 수도 있겠다. 이 경계대상 1은 우리 바퀴를 전멸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활동영역인 우리 바로 밑의 공간인 부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인간이고, 우리 활동시간대를 좀하게 한 인간이기도 하다.

경계대상 2. 앞서 경계대상 3부터 먼저 설명하겠다.

경계대상 3은 우리의 활동영역에서 거의 마주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곳 옆 공간인 욕탕에선 자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경계대상 2 나머지 셋을 통칭해서 부르도록 하겠다. ‘경계대상 3’과 비슷하나 ‘경계대상 3’보다는 신경 써야 할 인간들이다. 이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호들갑스럽게 ‘악’을 찾아 그걸 ‘손’에 쥐고

서는 우리에게 뿌려댄다. ‘경계대상1’이나 ‘2’도 악을 뿌려대는 건 맞지만, ‘경계대상 2’는 다른 경계대상처럼 암사하지 않는다. 그럼 ‘경계대상 3’과 같은 수준이지, 왜 더 신경 써야 되는가? 그건 ‘경계대상 2’가 ‘1’에게 우리를 만났을 때를 말하면 ‘1’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는 우릴 전멸시키려 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중 간혹 성질 급한 인간은 악을 대충 부리고는 죽였구나하고 그냥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윤이 좋으면 살 확률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상 여기까지. 우리가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 적어도 알아야 할 사항이다”

하고 말씀하시곤 “이제 해산!”하는데, 어느 돌돌한 어린 바퀴가 질문을 한다.

“악이란 것은 어떤 건가요?”

엄마는 소리가 났던 쪽을 바라본다. 하지만 수백(數百)의 바퀴에 묻혀 누가 질문했는지 알 수 없다. 엄마는 그냥 전체를 쓰-악 하고 둘러보고는 친절히 대답해 주신다.

“달콤한 향이 난다. 하지만 그것에 현혹되지 말 것. 인간이 손에 그게 쥐어지면,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네 등을 촉촉이 적서 더욱 윤기가 나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그 때쯤 스스로가 의식하지 못한 채 몸은 뒤집어진다. 다리는 하늘을 향해 바들바들 떨면서 서서히 죽게 된다. 혹은! 성질 급한 인간인 경우는, 우리가 뒤집힌 순간! 또는 뒤집히기 전에 휴지로 감싸 압사한다.”

우리는 순간 경직되어, 그저 웃으며 단상을 내려 갈 준비를 하는 엄마의 얼굴을 본다. 엄마가 내려가시면서 참고로 자신은 암사당해 죽는 게 낫다면서, 그

약을 맞고 죽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추하게 발버둥을 치는 게 자신은 싫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 약을 맞고 바로 뒤집혀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뒤집히지 않는다면 살 확률이 적어도 있다. 그리고 설령 뒤집어 졌다 하더라도 어쩌면 뒤집힌 채, 발버둥치다가 마비가 풀려 살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엄마는 괜한 희망을 품는 것, 또는 우리에게 괜한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 두려운 건지도 모른다.

- 사 전 답 사 -

“집합”

지는 해가 지붕 틈새로 엄청난 빛을 내뿜고 서서히 지붕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그리 달갑지 않은 빛이다. 그 달갑지 않은 빛을 피해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깊숙한 곳으로 기어 들어간다. 하지만 집합 소리에 수백의 어린 바퀴들이 분주한 발소리에 도저히 늦잠을 잘 수가 없다.

도대체, 어린바퀴의 생활터이자, 교육터인 이곳에 얼마나 많은 바퀴가 생활하고 있는지.

예전에 엄마께 여쭙본 적이 있다. ‘엄마, 우리 바퀴는 얼마나 되나요?’

엄마는 자신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셨다. 어림잡아서도 모르겠다고 하셨다. 굳이 어림잡아 말해준다면 수백(數百)... ‘교육반’을 때, 엄마께서 성숙한 바퀴까지 포함해서 수백(數百)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엄마께서는 그것도 맞다. 하신다. 바퀴가 빈번하게 수십(數十)에서 수백(數百)이 태어나고, 빈번하게 수십(數十)에서 수백(數百)이 죽고 또 빈번하게 이 집 밖을 아예 나가는 바퀴들 또한 수십(數十)에서 수백(數百)이라고.

엄마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큰 단위의 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곤 덧붙여 말씀하시며 ‘정말 많은 수의 어린 바퀴와 성숙한 바퀴가 살고 있는 건 사실이야.’

“집합”

다시 한번 집합소리가 들린다. ‘엄마가 있는 곳으로 빨리 움직여 가야 한다. 가는 길에 (어쩌면 나와 형제일지도 모르는) 나의 가장 친한 동료야’

“오늘 바깥구경.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

“진짜?”

“응. 이 집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면, 우리가 도망가야 할 동선과 피난처 등을 알려 준다 나 봐.”

“집합”

나를 포함 이미 정보를 접한 수백의 바퀴들은 설레는 맘을 안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본다.

“표정들을 보아하니...소식을 들은 모양이구나.”

그때! 오늘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깥구경을 할 것이다. 즉, 너희가 성숙한 바퀴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며 사전 답사다. 우리의 식량공급처가 어디인지, 만약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피할 수 있는 대피소 등을 알려줄 것이다.

떠나기에 앞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려 주겠다.

첫째, 무리에서 벗어나지 말 것.

둘째, 단체로 행동하는 이상 다 같이 죽기 싫으면 최대한 조용히 할 것!

이를 지켜야 다 같이 산다.”

우리는 최대한 조용히 바깥세상으로 가기 위한 통로에 일렬로 줄을 섰다. 엄마가 먼저 구멍을 향해 나갔다. 나가지 전에 조를 짜서 몇 십(十)씩 나갔다가 들어오는 식으로 하라고 하셨다. 그래야 위험 부담이 적다고.. 여하튼 우리 조 전에 몇 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한 조가 나가면 드디어 우리 조 차례다. 먼저 나갔다가 온 어린 바퀴들이 다 상기된 표정이다.

뒤에서 왜? 왜? 어땠어? 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직도 기다려야 하는 불쌍한 나머지 조원들이 궁금해 미치겠다는 듯이 물어오는 소리다.

나는... 이제 나간다!

“드르릉” 인간들의 소리가 들린다. 엄마를 쳐다본다. 그래도 초반에 있는 우리 조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런지 엄마는 많이 지쳐 보인다.

“이 소리는 괜찮은 소리다. 인간들이 같이 자고 있다는 소리이지. 즉, 우리가 안전하다는 뜻이다. 이제 슬슬 움직일까?”

“천장을 지면으로 하여 밑을 내려본다. 우와. 이곳이 인간들이 사는 곳이군.”

“여기가 부엌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바로 밑이지. 우리는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다른 곳도 있지만 다른 곳은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만 설명을 해주겠고, 다른 곳은 각자가 알아서 나중에 살펴보고 길 바란다.

저기 왼쪽 구석을 보라. 물기가 있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곳을 ‘개수대’라고 한다. 한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일 것이다. 그 안에 거름망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음식이 모여져 있다. 하지만 참고로 ‘경계대상 1’의 성격이 워낙 까다롭고 거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 두어라.

이 부엌 옆이 목욕탕이다. 욕조도 있고 변기도 있다. 뚜껑이 덮여 있지 않은 한 변기라는 곳에 항상 물기가 있으니 배가 고프거나 목을 축이고 싶거든 거기서 가거라. 우리 바퀴는 물만으로도 살 수 있는 대단한 종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엄마가 내려가 보자고 한다. 우리는 개수대를 지나 바닥에 섰다. 그리고 엄마는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물건을 보라 한다. 문이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로 되어 있는 특이한 물건.

엄마는 경의에 찬 눈빛으로 그걸 쳐다본다.

이것은 냉장고라 하는데, 정말 대단한 물건이다. 이 안에는 신선한 음식이 가득하다. 인간이 여기서 음식을 꺼내는 것을 봤다. 나도 이 물건을 갖고 싶더라 냉장고에 대한 것은 예찬을 하시더니, 뜬금없이

“밑의 틈새를 보라.” 하신다.

“인간이 만약 우릴 죽이려 달려든다면 이곳으로 피하라. 그리고 되도록 약이 미치지 않는 냉장고 뒤쪽이나 인간의 손에 닿지 않는 천장 쪽으로 재빨리 올라가는 게 좋다.”

잘 보면, 이 집 구석구석에 틈새가 많으니 이런 곳에 숨어 있으면 좋다고 한다. 그리고는 다른 조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쯤하고, 수박향이 진동하는 날이 되면 스스로 다니게 될 것이니 그 전까

늦어서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심해도 될 것이다.

너희들은 아직 이 집 구조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3시에서 4시쯤에 나갔다가 익숙해지면 1시에서 4시, 12시에서 5시로 넓히는 게 좋겠다.

이때까지 교육을 잘 받아왔으니 스스로가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어린 바퀴들은 모두들 들떠 있다.

자유가 주어졌으니 음식이야 알아서 찾아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곳이 아닌 다른 곳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에 모두들 흥분 상태다.

그런데 엄마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다른 바퀴들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단상을 내려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엄마 곁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사는 것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그러는 건가? 현재 우리가 지내고 있는 곳 말고도 바닥이라든지 다른 방 더그매에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집, 제한된 공간에서 지내는 거라 아예 안보는 것도 아니고, 활동영역도 같아 편할까 텐데...

그래도 엄마가 서운한가 보다. 하긴 수백(數百)의 우리를 힘들게 키웠으니...다른 곳에 살게 되더라도 엄마를 자주 찾아봐야겠다.

어쨌든, 나는 성숙한 바퀴이다. 내일부터는 자유다.

- 실 전 -

드디어 실전이다.

어젯밤에 나를 포함 넷으로 구성된 우리는 오늘 밤에 나갈 계획을 짰다.

-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 ① 3시에서 4시에 나가기로 하자. ② 천천히

더 일찍 올라가? “위험하지 않을까?”

“무슨 위험! 재밌을 것 같은데.”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다시 부엌으로, 개수대 위로, 천장 위로, 천장 속으로.

-수박향이 진동하는 날-

오늘은 좀 더 일찍 나가기로 했다. 조금 익숙해졌다고 1시간이나 앞당겼다.

사사삭-

“어? 저 빨간 건 뭐지?”

거름망에 빨간 찌꺼기가 눈에 띈다.

개수대에는 초록색에 검은 띠가 있는 물건이 한곳에 모여 있다.

“가까이 가 보자.”

그 초록색 겹대기 안쪽에 거름망에서 본 빨간 것이 들어있다.

향도 진하게 난다. 시원하다.

“우와- 맛있는 냄새야. 우리 한번 먹어볼까?”

“이거...혹시...수박 아닐까? 생각해보니, 어째도 이 냄새가 곳곳에 났었던 것 같아.

맞아. 그 냄새가 바로 수박 향인거야.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그 수박이고.

우리 한입만 베어 물고 올라가서 애들에게 말해주자.”

임안에 수박향이 진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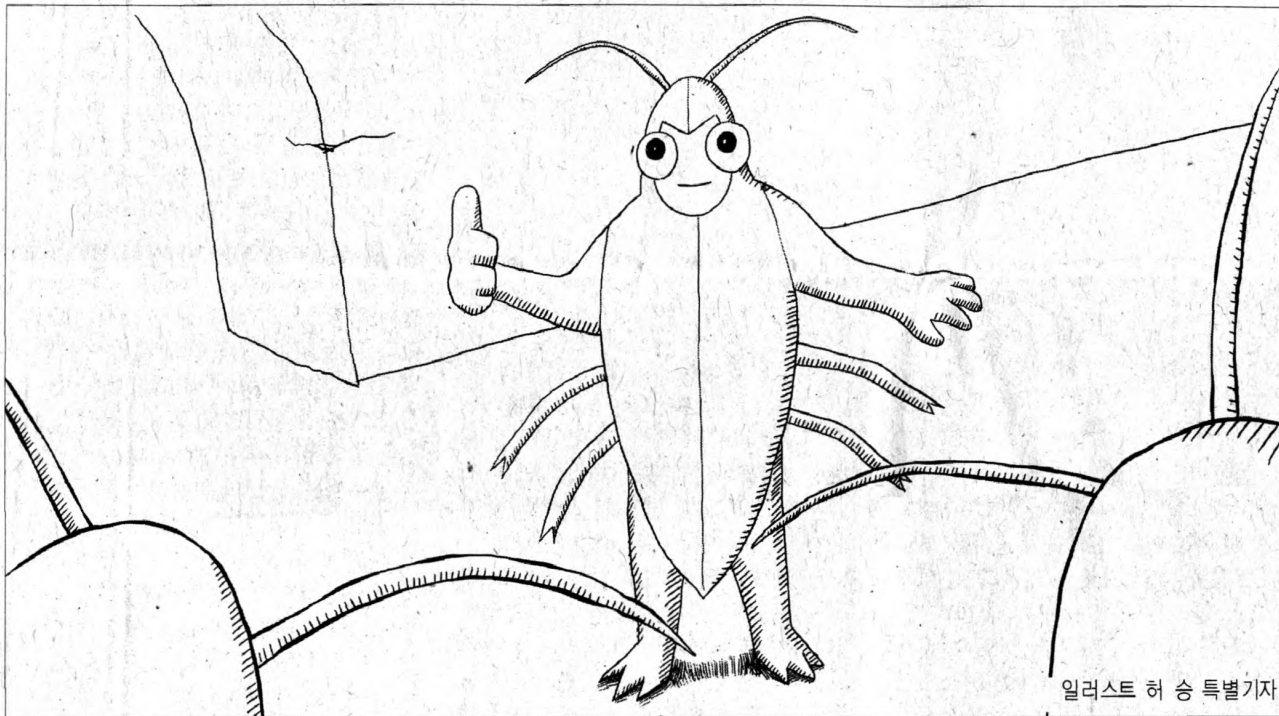
사사삭-

다른 바퀴들이 익숙해진 쥐뿔냄새가 아닌 신선한 수박 향이 진동하는 우릴 쳐다본다. 우리는 그게 밑에 있다고 말했다. 다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익숙해져서 의식하지 못했던 쥐뿔 냄새를 오랜만에 다시 맡을 수 있었다.

- 공존의 시간 -

동료 하나가 와서 오늘 혼자 나갔다고



일러스트 허 승 특별기자

지는 이곳에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조용히 위로 올라갔다.

아직 바깥구경을 못한 무리들이 있었지만, 갔다 온 바퀴들은 낮이 나가 있었다. 엄마가 그토록 경의를 표했던 냉장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짧은 동선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인지 그리고 피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다가, 어떤 한 바퀴가 “도대체 수박향이 진동하는 때가 언제냐고?” 성을 낸다.

그 말에 모두들 ‘그렇게 말이야’를 대꾸해 주면서, 오늘 경험을 가슴에 품고 저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 성숙한 바퀴 -

“야! 야! 특종이야!”

부지런한 동료가 자고 있는 나를 흔들며 깨운다. 짜증나는 목소리로 뭐? 라고 물었더니 내 기분은 안중에도 없고,

“아까 있었어. 엄마랑 다른 성숙한 바퀴가 대화하는 거 엿들었는데... 그게 말이야...”

“야. 뭐야. 나 그냥 잘래.” 하는데

“수박향이 진동하는 날이 왔다 나 봐.”

더듬이가 콧웃하게 세워졌다. 몸이 설렘으로 경직됐다.

“집합”

사사삭-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즉, 수박향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너희들은 성숙한 바퀴가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해 주겠다.

첫째, 인간의 기척이 들리거든 재빨리 피하라. 둘째, 인간의 활동시간을 피하라. 인간이 자는 시간은 (인간의 시간을 기준으로) 12시에서 5시까지.

12시에서 1시, 4시에서 5시는 조심하도록. 하지만 1시에서 4시 사이는 긴장을

부엌부터 구경하다가 ③여유가 있다면 다른 방도 구경하는 걸로 ④ 구경하다 맘에 드는 장소가 있을 각자 알아서 살기로. -

어제 짠 계획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빨리 3시가 되기만을 기다렸다.

3시다.

“시간됐다. 나가자.”

우리는 천장에서 천천히 내려갔다.

“아- 여기가 개수대로군.” 경계대상 1의 성격답게 거름망이 깨끗하다.

사사삭-

“우리 목 쪽 축이자” 천장을 통해 옆의 목욕탕으로 사사삭-하고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 사전 답사 때 왔었던 냉장고 옆에 섰다. 그리고 바닥에 난 틈으로 들어가 보고 그 뒤로 갔다.

“꽤 뜨거운데.” 천장 가까이 붙어 있는 찬장에도 사사삭-하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커다란 문 앞에 섰다. 사전 답사할 때 이집과 또 다른 바깥세상으로 나가는 통로라고 했었다.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신발장 틈새로 사사삭-하고 들어갔다 다시 돌아와 아까 지나갔던 찬장위로 올라가서 그 틈새로 들어갔다

다른 방으로 넘어갔다. 키가 작고 뾰글뾰글한 머리를 한 경계대상 1과 3이 누워있다. 그들이 누워있는 곳을 피해 옷장 틈새로 들어갔다. “넌다.” 옷장 뒤쪽으로 넓찍한 공간이 있다.

“하지만, 여긴 너무 위험해.” 하고 빨리 사사삭-하고 나왔다. 다른 방에 경계대상 2 둘이 침대에 누워있다. 책상도 있다. 사사삭- 책상서랍 틈새로 들어갔다. 서랍 안에 종이 조각들이 막 널브러져 있다. 여기 살아도 괜찮을 듯했다. 하지만 위험하다. 사사삭- 침대 밑으로 들어가 보자. 아주 넓군. 보류!! 사사삭-.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데 경계대상 2 방이랑 다들 바가 없어 그냥 나왔다.

“우와- 최고야.”

“응응. 이제 길도 알았으니 내일은 좀

졌다고 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겠느냐? 물어봤다. 그런데 그 동료의 말이 “12시. 인간과 거의 만났거 말까한 애매한 공존의 시간.”을 경험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이곳 말고 다른 곳도 남들이 차지하기 전에 알아봐야 되겠다. 하긴 이곳 부엌 천장과 지붕사이에는 어린 바퀴였던 우리들이 아주 일부 분만 독일을 했고, 아직도 많은 어린 바퀴였던 성숙한 바퀴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

나도 동료의 말에 솔깃하여, 나도 같이 나가자고 했다. 솔직히 활동하는 인간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했다.

위험하면서 내뿜 줄 알았던 다른 두 바퀴도 “그래, 까짓것! 언제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같이 나가자고 했다.

진짜 이번에는 어느 때와는 달리 두근거림이 다르다. 긴장된다. 떨린다.

구멍으로 내려가는 길에 스스로에게 말했다. 재빠르게 피할 것! 틈새로 들어갈 것!

부엌은 2시에서 3시까지의 시간대나 별로 다를 바 없이 어두컴컴하다. 우리는 휴-하고 각자 서로 돌아다니다가 모이려고 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디에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짰 후 돌아다니자고 말했다. 맘을 먹고 계획을 짜기에 좋은 장소를 물색하다가 찬장 위 틈새로 들어갔다. 한 동료는 목욕탕 쪽으로 들어갔고, 다른 동료도 돌아다니는 건 나중에 하고 뜨끈뜨끈한 냉장고 뒤에 몸을 지저러 들어갔다. 마지막 동료는 이곳과 바깥세상으로 이어주는 통로 앞으로 갔다. 다 제각각 가고 싶은 곳으로 흘러갔다.

팔작!

햇빛보다도 더 거슬리는 빛이 ‘파다닥’ 하더니 주변이 환해졌다. 나는 실눈을 뜨고 아래를 내려봤다. 인간이다. 크다.

소설 심사평

자연스런 구성·치밀한 묘사 돋보여



김동윤 문학평론가 (국어국문학과 교수)



오을식 소설가 (국립국립대학교 교수)

올해 소설 심사 대상 작품은 모두 14편이었다. 응모작 중 원고매수와 내용이 풍부 수준인 3편을 일찌감치 눈밖에 내고 심사해 입했다. 먼저 스토리 전개가 느슨하고 발상이 진부한 작품을 제한 다음, 주제가 모호한 작품들을 차례로 걸러내고 나니 어렵지 않게 다음 3편이 손에 남았다. 〈어둠 속의 두 눈〉, 〈위대한 하루〉, 〈커튼을 열어버리다〉.

〈커튼을 열어버리다〉는 자연스러운 묘사와 능숙한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 아주 쉽게 읽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소재나 주제의 무게로 보아 동화에 가깝고, 이때 전에 응모했던 작품을 거의 그대로 다시 응모했다는 점에서 선외로 넘겼다. 기회를 찾아서 동화 작품 응모에 참여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하루〉는 인간과의 소통을 통해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발칙한’ 바퀴벌레를 소재로 삼았다. 소재가 특이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전개로 잘 읽히는 작품이다. 하지만 작품의 시선이 바퀴벌레 일방에 치우쳐 있고 스토리가 단순해서 소품으로 읽히는 게 흠이다. 소통의 상대인 인간을 바퀴벌레 시선에서 보다 밀도감 있게 함께 형상화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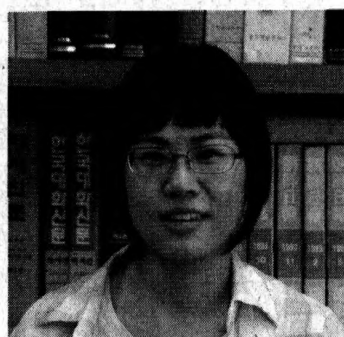
훨씬 재미있으면서 주제에도 무게감이 실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어둠 속의 두 눈〉. 사실이 작품을 읽으면서 당선작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었다. 소재의 무게감, 거침없는 입심, 특히 침침을 이용한 문장의 호흡조절은 작품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 치밀한 묘사, 궁극을 유발하는 단단한 플롯. 그러나 소설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의 치명적인 한계가 안타까웠다. 소설가는 드러내서 보여주는 사람이지만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소설을 쓰다보면 심판자가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마련인데, 그걸 극복하려면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마치 고개를 세운 살모사처럼 냉정해져야 한다. 이 작품의 경우 작품을 어디에서 끝낼까 주제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지 다시 고민해보기 바란다. 또 하나의 흠은 마지막에 사족을 달았다는 점이다. 독자는 작품을 통해서 전철의 기관사가 외국인 노동자의 자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이미 훤히 꿰고 있는데, 작가는 혹시 독자가 그걸 모르면 어쩌나 싶었는지 ‘박철준 씨는 퇴근을 앞두고 있었다...’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 유능한 작가는 독자를 위해서 독자에게 부러 불친절하게 군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장고 끝에, 아쉽지만 올해는 당선작을 내지 않기로 했다.

두 작품, 〈위대한 하루〉와 〈어둠 속의 두 눈〉을 양손에 들고 고민하다 공동 가작에 넣기로 했다. 가작 수상자는 물론 응모자 모두 앞으로 분발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

소감



양미혜 행정학과 4

원고를 제출하고 집에 오는 길에 마냥 두근두근했다.

‘역시, 좀 더 손을 봐야 했는데’ 하는 후회와 ‘그 단어로 고친 게 나았나? 그냥 처음에 썼었던 단어를 그냥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하고 계속 곱씹게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을 더 길게 쓸 것 하다가도 허무하게 죽는 걸 표현하려고 그냥 순식간

에 후다닥 처리한 것도 제출을 하고 난 후에는 차라리 그러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아쉬움도 밀려왔다.

저는 눈에 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용기도 없고, 대범하지도 않다. 그런데 ‘용기’라는 말에 회피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지지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 저를 깨닫게 했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는 용기 있고 정감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장을 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다.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매우 힘든 일이겠지만 누군가는 바퀴야 하는 것이니까. 쓰면서도 느꼈다. 충분히 힘든 일이라는 걸.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 존경하고 감사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충격에 빠져 사사삭-하고 더그매로 올라갔다.

우리가 성숙한 바퀴가 된 날! 엄마가 왜 울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게 그랬었군. 그래서였어.

나는 엄마를 찾았다. 밑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엄마는 담담하게 ‘그래’라고 했다. 나는 실제로 내 친한 동료가 죽는 걸 봤다. 내 눈으로 직접... 어떻게 죽는지도 봤다. 엄마의 담담한 ‘그래’에 나도 덩달아 담담하게 흥분을 가라앉힐 수는 없었다. 흥분을 가라앉히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할 수가 없었다.

“엄마 우리와 인간은 공존하는 관계 맞지요?”

“응”

“그런데, 공존이란 게 이런 건가요? 어쩌서 인간과의 공존이라는 건 우리는 나 무관한 사이에 두고 진정한 공존이 아닌 공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우릴 죽일 수 있죠? 이게 공존인가? 이것도... 다른 종과는 다른 개념의 공존인가요?”

“...이게 공존이야. 그래서 내가 규칙을 말해줬잖나.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서로를 위한 규칙.”

“엄마, 이런 공존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살기위해 숨어 지내는 것뿐이라고요.”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내 동료는 죽었다.

“서로를 위한 규칙이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살기위한 우리만의 규칙이지요.

엄마, 정말로 우리만의 규칙이 아닌, 서로를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 되요. 서

로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걸 서로 양보 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악의가 없음을 보여 줘야 해요. 그림 방에 몰래 움직이는 행동도 하지 말고 당당히 앞에 나가야 되요.

그리고 저는 인간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 저에게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당당히 요구할거예요.”

엄마는 그저 나를 바라보기만 한다. 뭐라고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냥 무시하고 나와 버렸다.

- 공존을 위해서라면 -

나는 이제부터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른다. 하지만 해야 된다. 일단 창고에 들어갔다. 이곳에 여러 잡동사니 외에도

오래된 책이 많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책을 모았다. 모으면서 내가 할 수 있을 까, 하는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해야 된다. 조상님들 또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쓸 줄 알았다고 했으니...쉽진 않겠지만 나도 할 수 있을 것이 다.

창고 구석에 자리를 잡아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공부하는 도중, 몇몇의 바퀴가 비웃으며 “네가 할 수 있겠어?”, “그만 포기해.” 라는 식으로 사기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에 그레, 그만 들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네가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하며 격려해 주는 동료들이 있어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공부하는 순간에도 나를 비웃고, 나를 응원해주는 바퀴가 많이 죽었다는 것은 안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인간과 대화를 해야 된다. 나가기에 앞서 내 계획은 이렇다. 1단계, 인간의 활동시간대에 나간다. 2단계, 그들이 나를 보게 될 때 현란한 스텝을 보여준다.(나는 그들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줄 수단으로 현란한 스텝을 생각해 냈다.) 그들은 이러겠지. “와와~”

3단계, 그들이 나를 유심히 쳐다보게 될 때, 말을 한다. 설명 이 때 약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해 하며 내 말을 들어 줄 것이다.

4단계, 우리는 이제 진정한 ‘공존’이다. 평화는 시작될 것이다.

- 위대한 하루 -

두근두근.
윤기 나는 내 등을 거울에 비춰본다.

최소한 인간을 만나기 위한 예의라면 예의랄까. 더듬이도 쓰-음하고 정리해 본다.

준비운동도 해 본다. 현란한 스텝을 위해.

떨린다. 긴장된다.

내려가는 구멍 입구에 엄마가 보인다. 전날 밤, 결전의 시간이 바뀌어겐 일어나 기에는 이른 시간대라 미리 말씀드린 거였는데.....

“엄마, 오늘이에요.”

“괜찮나?”

“미칠 듯이 기분이 좋아요.”

“오늘, 만약, 잘 못되면..... 잘 피하거라.”

“걱정마세요. 잘 될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잘돼야죠.”

동료들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 나를 둘러싸고 마지막 격려를 해준다. 나를 비웃었던 동료들도 오늘은 응원해준다. 힘내라고.

떨린다. 그런데... 만약... 됐다! 잘 될 거야.

떨린다.

구멍을 통해서 밑으로 천천히 내려간다.

‘경계대상 1’이 밑에 있다. 개수대에서 그곳을 찢고 있다. 거름망에 있는 음식찌꺼기를 어떤 통에 따로 모아두고 있다.

‘나중에 동료들에게 말해줘야지. 오늘 잘되면 나중에 인간에게 부탁해봐야지.’

조심조심 내려간다.

개수대에... 그리고 인간 앞에.

나는 부엌 바닥에 서 있다. 내 앞에 인간이 등을 돌린 채 서 있다. 인간이 뒤를 돌아보면 나의 윤기 있는 등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나의 현란한 스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말을 할 것이다.

두근두근

“엄마! 바닥에!!! 약! 약! 약!”

모든 감각을 바로 앞에 있는 인간에게만 집중하다보니 다른 곳에는 신경 쓰지 못했다. 하지만 당황하면 안 된다. 현란한 스텝을 보여준다.

현란한 스텝으로 오른쪽, 왼쪽해가며 멋있게 왔다. 이쯤하면 되겠지. 하고 경계대상 1을 보는데, 그의 손에는 이미 약이 들려 있었고, 그래 이때다. 말을 해야겠어.

“저.....”

치-윙!

이건 내 계획에 없는 건데..

더 현란한 스텝을 보여줘야겠다.

발이 허공에 뜬 느낌이다. 내 눈에 엄마와 동료들 얼굴이 보인다.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새 몸이 뒤집어져 있었고, 다리는 허공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

엄마와 동료가 눈물을 흐르는 게 보였다. 나를 비웃었던 동료가 ‘그럼 그렇지’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끝)

소설부문 가작

어둠 속의 두 눈

박승채 독일학과1

부시게, 그러다 점차, 점차 뜨겁게 쏟아지는 햇살의 무리들 속에 그는 서서히 잠에서 깨어난다. 그러나 의식이 돌아왔을 뿐, 곧 눈을 뜨지는 못한다. 감은 눈앞이 밝다. 이건 분명 대낮이야. 그레, 낮이야. 밤이 아니야. 밤이 아니야. 어둠이 아니라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그는 가슴을 졸이며 눈을 뜬다. 뜨려 한다. 허나 눈이 잘 떠지지 않는다. 눈곱이, 양쪽 눈의 윗눈꺼풀과 아래눈꺼풀 사이사이에 낀 눈곱이 밤풀처럼 덕지덕지 끈덕지게 달라붙어 눈이 잘 떠지지 않는다. 천천히 눈을 뜬다. 겨우 눈이 떠진다. 예상했던 대로 방 안이 흰하다. 파악 단친 창문 유리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의 줄기들이 아무렇게나 어질러진 방 안 구석구석에 쏟아져 내린다. 아홉, 하프파도 같은 한숨을 내뿜어주자 입에서는 시궁창 냄새가 확확 풍겨나간다. 입 안에서 몇 달 동안 가물고 가쁜 누드령의 밀바닥과 같이 찌적대며 갈라지는 소리가 귀에 왕왕 울리는 것 같다. 요의를 느꼈으나 일어나는 것이 귀찮아 그대로 한동안 이불 속에서 뒹굴 거리다 이내 잠기 어려워진 순간에 가서야 그는 겨우겨우 등을 일으킨다. 단칸방과 부엌을 연결한 미닫이문을 발로 열어젖히고 부엌 안 시멘트 위에 누른 오줌줄기를 휘갈린다. 그의 머리 위에 달달불불은, 동백기름을 바른 듯한 머리칼이 햇살을 받아 더욱 반들반들 빛이 난다. 그의 방안의 형광등은 대낮인데도 두 개가 모두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다. 그는 다행스런 눈길로 환하게 켜져 있는 형광등을 바라보며 다시금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는다. 지난밤에는 오지 않았었다. 그 눈, 그 눈이, 어둠 속에서, 어둠보다 더 어둡고 음습한 검은 머리칼을 휘감아리며 동충(同種)의 피부가 아닌, 어둠 속에서 도 선연하게 분별되는 까무잡잡한 피부색을 한, 어둠 속에서 가슴 밑으로 흘러내린 검은 머리칼 속에 고개를 반쯤 쳐들고 한 손에는 빗줄을 든, 목에는 붉은 빗줄자국과 그로 인해 패인 듯한 큼직한 상처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그러다 고개 들면, 고개를 들면, 흰자위가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눈에서는 붉은 물이 흘러내리고, 놀라 뒤로 질질 엉덩짝을 끌며 달아나려 하면 제대로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손에 들고 있는 빗줄을 날려 그의 목덜미를 휘감아버리는, 킁킁... 케케... 목덜미를 휘감은 빗줄은 공중으로 올라간다. 천장까지 올라가 머리를 쿵쿵, 몇 번 부딪히게도 하다, 이윽고 더는 숨을 쉬기 힘들어 점차 의식이 혼미해지며 숨줄을 놓으려고 할 때, 그 때, 언제나, 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의 한가운데에서야 그를 놓아주는. 그 눈, 그 두 눈이, 지난밤에는 오지 않았었다. 환하게 불을 켜놓아서 그런지도 모른다. 아니, 불을 켜놓았을 때조차도 그는 온 있었다. 그, 산발한 머리에 고개를 반쯤 숙인, 한 손에는 빗줄을 든, 분명 여자였다. 안면부지의 여자였다. 도시 생각해보도 한 번도 원한이란 것을 사본 적이 없는, 안면부지, 생면부지의 여자였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다만 낮이 익는 게 있다면 그 눈, 천장까지 빗줄에 묶이 걸려, 한 순간에 들어 올려 졌다가도 숨이 넘어가기 직전야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진 후에 킁킁대며 두려움과

가없는 공포 속에 올려보면 자신을 내려보는 희번덕거리는 눈동자, 원망에 가득 차서, 붉은 물이 흘러내리는, 밤고양이의 눈빛처럼 날카롭다가도, 허물어진 벽처럼 절망적인 눈동자.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어디선가..... 어디선가, 그러다 어디, 언뜻... 한순간 그 여자의 눈 안에서 번뜩이며 지나치는 눈, 두 눈의 기억, 두 눈빛의 기억, 어둠 속의... 어둠 속의... 어둠 속에서 뒹겨나왔던, 두 눈, 그 날, 그 어둠 속의 두 눈, 절망으로 뛰어 나와 종내는 악몽으로 퍼져갔다.

‘저리 가. 내 잘못이 아니었잖아.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내 탓이 아니야.’

그는 고통스런 눈살을 찌푸리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둘러싼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내 탓이 아니야.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렇게들 말을 했다. 네 탓이 아니야. 사건현장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취재 나온 신문사와 잡지사 기자들의 입안에서도. 그레그레, 내 탓이 아니야, 사고였어. 우연이었을 뿐이야. 단지... 단지... 그레그레, 단지,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야.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다 털어내고, 새로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털어내려 했으나, 잊어내려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날이 지날수록, 지나갈수록, 기억은 외려 선명해져, 선연하게 뇌리에 들러 앉았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고,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기절할 때까지 속 안에 들이부어도, 좀처럼 기억은 떨어지지 않고 본드처럼,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눈이, 그 여자가 다가왔다. 밤이면, 밤마다... 아무리 문을 딱 닫아도 아무리 이불을 둘러싸도, 어느 틈에 다가가서는 쫘뼛 둘러싸면 이불이며 옷가지들을 다 벗겨 내버리고, 한 손에 든 빗줄을 목위에 휘감겨서는, 쾅쾅, 쾅쾅...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야 놓아주는.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 위, 환하게 켜져 있는 형광등을 본다. 제발, 제발 제발 오늘 밤에도 오지 말아줘. 그러고는 지친 몸짓으로 다시 한숨을 토해내며 자리에 눕는데, ‘탁...! 탁...! 탁...!’

연속적인 소리 하나가 이불 끝으로 팍 틀어막은 그의 귓속으로 파고든다. 벌써? 아직 대낮인데? 그는 놀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심장이 마구마구 두들망이질을 해댄다. 그러나, 아니다. 이번에는 아니다. 지금 그 소리는, 밤의 그 여자, 빗줄을 든 그 산발한 머리의 이국의 피부를 한 그 여자의 귀가 아니다. 탁...! 탁...! 탁...! 가만 귀 기울여보니, 문가에서 나는 소리. 그레, 문을 두드리지는 소리다. 문 두드리는 소리. 또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같은 소리. 한 이삼일 전부터인가 저렇게 문가에서 탁... 탁... 탁...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짜증이 왈카 치밀어 올랐다. 가뜰이나 밤에, 그 손에 빗줄을 쥐고 나타나는 여자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만 같은 공포와 두려움의 나날 속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내고 있는데, 이도 모자라 이제는 별 게 다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것이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저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내어 두들겨 박살을 내버리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나, 기진맥진하



일러스트 허 승 특별기자

여, 그럴 힘마저 없는 그는 다시 자리에 누워버린다. 그 후에도 그 탁... 탁... 탁... 문 두드리는 소리와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는 주기적으로 들려온다. 지치지 않고 들려온다. 그는 모른 척 한다. 한 동안 모른 척 한다. 모른 척 해도 아무 상관없다. 다만 어둠 속에, 밤에, 곧 스스로에게 다쳐서 그 공포어린 두 눈빛을 생각하면 요즘이 저러를 뿐. 살짝 눈을 떠서 천장 위에 환하게 켜져 있는 형광등을 바라본다. 그나마 안심이다. 오늘밤에도 오지 마, 제발, 제발 오지 마.

그러다 어느 순간 파지직! 하는 파편 튀는 소리가 그의 귓속으로 천둥처럼 울려왔다. 그는 경이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파편 부딪는 소리가 난, 천장 위의 형광등을 바라본다. 등이 나간 것이다. 형광등이 나가자, 순식간에 방안의 명도는 눈에 띄게 흐려졌다. 시계를 보았다. 오후 네 시가 지나가고 있었다. 방 안으로 동동 떠다니는 그들의 입자들이 그의 눈앞에 또렷이 보였다. 그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뿜겨 일어났다. 그리고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휴지처럼 꼬깃꼬깃해진 천 원짜리 몇 장을 입고 있는 바지주머니 안에 아무렇게나 밀어 넣은 후에 맨발에 슬리퍼를 대충 걸쳐 신고 확! 문을 열어젖힌다. 그러자 쿵, 소리와 함께 아야! 하는 비명을 질러대며 누군가 옥탑방의 문 앞, 옥상 바닥 위에 엉덩방아를 찧 쪼는다. 여자가. 배가 볼록한, 임신한 여자. 배의 부름으로 보아 임신 6, 7개월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형광등이 나갔다는, 그리하여 어서 형광등을 갈아 끼워야 한다는 생각 밖에는 아무 생각도, 어떤 분별도 오가지 않는다. 뒤에 쓰인 사람처럼 혼이 나가 옥탑방 계단 밑을 내려가려는데, “석하 씨!”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 임신한 여자다. 돌아보니, 무거운 몸으로 엉덩방아를 찧은 충격이 몹시도 큰 지 고동스런 표정을 미간에 그리며 겨우 겨우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다. 그는 본 체 만 체 다시 계단을 내려가려 하는데 여자는 이를 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빠르게 걸여와 그의 왼손목을 잡는다. “자기가!”

그러나 그는 여자에게 붙잡힌 왼손목을 거칠게 뿌리친다. 너였구나. 그는 여

자의 얼굴을 훑어본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여자다. 그레, 분명 본 적 있는 여자다. 아주 낮이 익는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윽고 점점, 순식간에 의식의 바탕이 희미해지고 아무렇게나 뒤엎겨버린다. 거미줄처럼 뒤얽힌 의식의 혼미한 속에 기억은 힘없이 꼭 사그라지고 지금 눈앞에서 그의 손을 붙잡고 애걸하는 여자는 예전의, 어쩌면 아주 절실했을 지도 모를, 어느 감정의 한 칸에 아련하게 서 있는 기억의 주인이 아니라, 다만, 그래 다만..... 분명, 너였구나. 너지? 네가 요 며칠 자꾸만 내 방 문을 탁... 탁... 탁... 두드렸던 거지? 그 주변이지? 짜증스럽고 귀찮고 화파직에 둘러싸인 생각만이 그의 가슴속에, 그 여자를 노려보는 그는 안에 가득하다. 붙잡힌 손목을 뿌리치고 옥탑방을 내려가려는데, 내려가서, 어서, 어서 제발 빨리 내려가서, 어서 나는 새 형광등을 사서 방 안을 환하게 불 밝히야 되는데, 그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가 제발!”

볼록하게 배가 솟은 임신한 여자는 도무지, 도무지 귀찮게도 그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이전 아주 허리춤에 꼭 매달려 있다. “꺼져.” 그는 단호하게 내뿜는다. 그러나 “안 돼. 안 돼 자기가. 그러지 마. 이리저 마. 응?” 여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의 허리춤을 더 꼭 끌어안는다. “꺼져 씨발년야!”

그는 짜증이 치솟아 더는 견디지를 못하고 주먹으로 여자의 뒤통수를 내리찍어버린다. 아야! 외마디 비명을 질러대며 여자는 그의 옥탑방이 있는, 옥상 위 시멘트 바닥위에 다시 엉덩방아를 찧, 하고 짓췌는다. 해가 점차 뉘엿뉘엿 서편으로 저무는 모습을 보며 초조해진 그는 헬레벌떡 옥탑방 계단을 내려간다. 그의 뒤에서 여자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악에 받쳐 고래고래 들려온다.

“야 이 바보야! 네 잘못도 아니잖아! 그냥 사고였잖아! 재수 없게 그냥 개나 고양이까지 멋대로 뛰어 들어와서 내 차에 받쳐 치어 죽은 거랑 뭐가 달라! 그냥 끝낼래? 이대로 세상 망칠래? 겨우 그것일로 세상 망쳐?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제 다시 방향 같은 거 안 한다고 했잖아! 이제 마음잡고 새롭게 새 출발 잘하자고 했잖아! 나랑 같이! 우리, 우리... 우리 아끼랑 같이!”

그러면서 임신한 배불뚝이 그 여자는 자리에 퍼질러 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이 나쁜 놈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전과사에서 형광등을 새로 사고, 좀 전의 그 귀찮은 여자 때문에 짜증이 나버린 그는 전과상 앞 슈퍼마켓에서 담배 한 갑을 사 몇 개를 피워 바닥에 뱉어버린 뒤에, 서서히 지상으로 내려앉는 땅거미와 주홍색 불빛을 하나 둘 켜기 시작하는 가로등을 바라보며 터벅터벅 계단을 올라 방문 앞에 이르렀다.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참 귀찮은 년이야. 남자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웠다. 두려움에 그는 벌벌 떨며 형광등을 재빨리 달고 스위치를 눌렀다. 새로이 산 형광등의 불빛 두 개가 몇 번의 깜빡임 뒤에 환하게 켜져, 다시금 그의 단칸 옥탑방 안에서 그들의 입자들을 몰아냈다. 후우..... 겨우겨우, 그제야 겨우겨우,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졌다. 지친 그는 벽에 기대 주르르, 등을 미끌어 내리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머리부터 다시 방바닥에 스스로를 눕혔다. 발가락 끝으로 이불을 들어올려, 머리까지 올려 썼다. 힘들었다. 텅 빈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이 감졌다. 눈을 감았다..... 불을 환하게 켜놓으니까 관찰을 거야..... 올 리 없어... 올 리가 없어..... 그는 한숨을 토해내며 눈을 감고 계속해서 되뇌었다. 잠 들지 않아... 잠 들지 않아... 잠 들지 않아.....

그는 잠들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을 뿐. 그리고 그 감은 눈앞, 눈꺼풀 위가 붉은 것을 눈 감고도 계속해서 인식하며 의식하며, 새로 산 형광등이 굳게 켜 있음을 확인하며, 그는 지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 다시 파지직! 전기불꽃이 거칠게 파편처럼 부딪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역시도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놀라 눈을 떴다. 까맣다. 캄캄했다. 눈앞이 어두컴컴했다. 기절할 것 같은 놀람과 공포 속에서 그는 벌떡,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광망! 창문 밖에서 바람이, 오후에서 저녁으로 향하는 바람이 드세게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 것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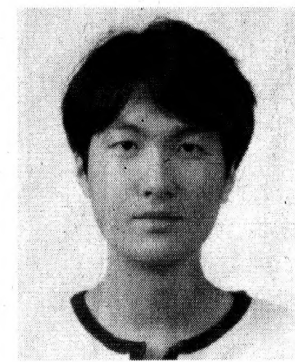
보이지 않았다. 이불을 더욱 꼭 끌어안았다. 당장이라도 심장이 딱 멈출 것만 같은 압박과 공포가 그에게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리고..... 아아 그리고, 뻘이 의, 거슬리는 소리와 함께 옥탑방의 나무문이 서서히 열린다. 열리고, 하얀 치마가, 하얀 셔츠가, 어둠 속에서, 불 꺼진 어두운 방 안으로 저저저저 걸어온다. 하얀 치마, 하얀 셔츠, 그 하얀 것들, 그 때에 절어 얼룩덜룩해진 빛바랜 하얀 치마, 하얀 셔츠, 밝지 않게, 외려 더 불길하게, 불안하게 방 안으로, 이불을 둘러싼 채 벌벌 떨고 있는 남자에게로, 다가온다. 걸어온다. 서서히, 서서히, 결코 서두르지 않고, 결코 분주하지 않게..... 손에는, 한 손에는, 굵은 동아 밧줄을 꼭 쥐고, 채로..... 이국의 피부를 가진 고개를 숙이고..... 눈가에서 목으로는 붉은 물이 흘러내리는... 누런 고름이 흘러내리는..... 산발한, 아무렇게나 풀어헤쳐 흘날리는 머리칼처럼, 그 깊고 짙은 두려움의 내음새로..... 향기로..... 그가 두 손 안에 꼭 쥐어 잡았으나, 천천히... 그가 힘주어 꼭 잡고 있는 이불자락이 한순간에 풀어헤쳐진다. 오야악! 그는 겁에 질려 뒤로 엉덩이를 질질 끌며 물러나지만 이내 벽에 부딪혀 더는 뒤로 물러서지 못했다. 이국의 피부를 가진 검은 머리의 여자는 이내 고개를 든다. 그리고 흰자위가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그를 노려본다. 그는 그 하얀 치마, 하얀 셔츠, 산발한 머리의 여자, 그 여자의 눈을 본다. 그 눈, 그 두 눈. 그 어둠 속의 두 눈. 절망으로 빛나는 두 눈. 그 절망어린 눈 안에서, 그 여자의 눈 안에서, 또 하나의, 또 다른, 서로 다른 또 하나의 눈을 본다. 그 어둠 속의... 갑자기 뛰어 들어왔던..... 뒹겨 날아왔던..... 평온했던 일상, 어느 하루의 끝 무렵에, 그리고 무한한 공포와 회한 속에 몰아넣었던 그를 몰아넣은 한 남자, 그레 그 한 남자, 어둠 속의, 절망어린 두 눈, 두 눈빛을. (후략)...

지면관계상 후략된 원고는 제주대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www.cnpupress.com)

소감

먼저, 부족하고 흠 많은 글을 수상작으로 선정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딱히 글쓰기를 배운 적도 없고 어디서 창작법을 주워들은 적도 없이 그저 문학이 좋아, 소설이 좋아 되지도 않는 문장들을 작 품어담시고 남몰래 혼자서 가끔 가끔씩 소설쓰기를 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문학상에 소설로 상을 받게 돼 커다란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상을 받았다고 하여 제 소설이 좋은 글이라거나, 스스로가 남보다 뛰어난 글쓰기 실력 혹은 문학적 역량을 가진다는 생각 같은 것은 감히 하고 있지 않다. 더 높은 문학과 더 나은 소설에의 실험과 완성을 위해 늘 노력 하겠으며, 정진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해본다. 끝으로 소설을 쓰는 동안,



박승채 독일학과1

개인적인 심리상황이나 주변상황이 켜 여의치가 않아 나를 불편한 사향도 적지 않았으나, 부족한 필력이나마 꼭 참고 글쓰기를 끝까지 하여 소설작업을 끝마친 자신에게 스스로 위로하고 싶다.

무론유설

방학일언(放學一言)

6월 중순부터 8월말, 대학은 두 달 이상의 방학에 들어간다. 방학(放學)의 ‘방(放)’ 자에 〈놓다(釋), 넓히다(弘)〉란 뜻이 있으니, 방학은 잠시 ‘내려놓는’ 기간이면서, 또 다른 형태의 배움을 ‘넓히는’ 시기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두 달 꼬박 아르바이트나 과외로 보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분야를 위해 다른 공부에 매진하기도 하고, 평소시 꿈꿔 온 일을 시도하기도 한다.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가는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4년의 방학동안 꼭 잊지 말고 기본적으로 실천하였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

첫째, 내가 도움 받은 주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대학 합격 후 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내가 합격한 것, 내 아들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어느 학생의 글을 읽고 가슴 뭉클했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내 능력만은 아니다. 부모, 형제, 친척, 선생님, 지인들, 이웃들!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대학을 다니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이다. 편지나 메일,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자.

나를 둘러싼 인연이 얼마나 귀중하지 느낄 수 있다.

둘째,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서이다. 종교와 더불어 독서는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사고와 상상력을 확장시켜 준다. 지하철에서조차 드라마를 보고,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강력한 영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대학생으로서 주체적 자아 정립을 위해서는 사색과 성찰이 필요하고, 따라서 독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자기계발서, 쉽게 풀어 쓴 전공 관련 서적,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베스트셀러,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고전 등 다양하게 독서하자. 기왕이면 학과 교수님들께 추천 목록을 받아 계획을 짜도 좋을 듯하다.

셋째, 다양한 자연·역사·문화에 대한 여행과 답사 체험이다. 제주의 올레 걷기나 자연경관 하이킹, 템플스테이 혹은 친구집 방문, 국내외 배낭여행, 역사문화답사 등,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과 여유를 느끼고, 역사와 문화를 통해 진솔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체험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여행길에서 잠깐 스쳐가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바

꾸어 놓을 소중한 인연을 만나기도 한다. 염서를 넣고 다니다가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글도 훗날 추억이 될 것이다.

넷째, 외국어는 이제 세계화 속에서 다양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었다. 라디오 영어강좌이든, 인터넷 강의든, 학원 강의든 성공의 관건은 지속성이다. 하루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자신의 미래를 위해 외국어 공부에 투자해보자.

다섯째, 20대지만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기 중 피치 못할 술자리와 과제로 밤새우기가 습관화된 학생들이 많다. 조깅이든, 축구든, 수영이든, 요가든 하나 선택하여 건강관리에 들어가자. 3,40대 체력을 위해 미리 보충 든다는 생각으로 평생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즐기며 해보자.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섯째, 나누는 삶으로 관심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대학생활은 삶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세계관도 확대된다. 나를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나누는 삶’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 작은 기부활동에서부터 공부방 봉사, 야간 대학 봉사, 학

은 어려운 곳이나 빈곤 국가에 대한 봉사에 이르기까지 타인을 위한 삶에 시선을 돌려보자. 나로 인하여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공존이야말로 미래 삶의 중요한 가치의 하나라는 미래학자들의 말은 이러한 나눔의 의미를 새롭게 해준다.

일곱째, 나의 실천에는 자기관리와 시간관리가 핵심이고, 메모습관은 기본이다.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사회적 성공은 메모에서 시작된다. 내가 접하는 지식, 경험, 느낌 등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게 마련이다. 자기관리를 위해 플래너 혹은 스케줄 수첩에 대하여, 기자수첩을 추천하고 싶다. 일정과 관련된 내용, 경험과 느낌을 기록하는 데 기자수첩처럼 편하고 좋은 것은 없다. 그 기록들이 훗날 나의 역사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확신과 인내, 성실성이다. 누군가는 작심삼일이라고 하겠지만, 사흘마다 작심하여 지속된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방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겠는가?

장승희 교육대학 윤리교육전공 교수

사설

총장임용 지연,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대학교 총장 임용이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 모든 학사행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중요한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이 모두 유보되고 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일은 이런 중대한 사태에 즈음해 교수회에서 한 차례 성명을 발표했을 뿐, 학내 구성원 누구 하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교수, 직원들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용후보자인데도 임용 지연 사태에 대해 이렇게 다들 앉아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도 과연 좋은 것인지 묻고 싶다. 유권자 권리의식의 실종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익명의 투서가 달인이 되어 관계 당국이 검증하고 있다는 뒷소문만 무성할 뿐, 투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하자가 있어 이렇게 오랜 검증 기간이 필요한지 오리무중이다. 국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관료적 독선과 오만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나, 이제라도 교육부는 문제가 된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임용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번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는 이전과는 달리 공직자선거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 관리하여 사소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졌고, 임용후보자가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1위 후보자를 임기 시작에 맞춰 임용하는 것이 학사행정의 공백을 없애 대학운영의 정상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우선 임용하고, 임용된 총장에 실정법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처리해도 좋을 것이다. 총장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면제부가 주어질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선 학내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질 있으면 책임지면 된다.

혹자는 지난번에 있었던 임용 지연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난번 선거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정선거 시비로 특정 후보자가 학내 선관위와 상대 후보로부터 검찰에 고소 고발이 된 상황이었던 때문에 이번의 사안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4년 전 이와 같은 사태가 빚어졌을 때 ‘제정추’란 임의기구가 조직되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교수회와 선관위를 공격하며 대립각을 세운 일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왜 지금의 사태에 대해선 일원반구도 없는 지 아시려울 따름이다.

그리고 익명의 투서자들에게 묻는다. 그들이 제기한 내용이 정말 사실에 입각하고 대의명분이 뚜렷하고, 대학을 위한 일이라면 왜 당당하게 실명을 밝혀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는가? 혹 익명의 그늘에 숨어 돌아가는 추이를 보며 사실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비겁한 저의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총장권한대행자와 주요 보직 교수들은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당국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에 성의를 다하기 바란다.

직원들의 기구인 공직협과 직원협의회도 마찬가지다. 교수들의 대표기구인 교수회는 교수들의 총의를 모아 총장임용 지연으로 더 이상의 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바란다. 총장이 없는 대학, 그래서 책임질 일도, 책임질 사람도 없는 대학, 모두가 부끄럽지 않은가?

돌하르방

자살 책임은 사회에 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자살’이라는 말로 전해 들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비롯해 연예인 장자연씨, 안재환씨, 그리고 더 과거를 더듬어 보면 최진실씨의 죽음도 잊지 못할 사회적 충격이었다. 누군가가 죽고 그 죽음이 조금씩 대중 속에서 지워져 갈 때 즈음이면, 다시금 누군가가 죽어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되짚어보면 이러한 죽음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모든 죽음에는 살아서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다.

최진실씨는 악플에 죽었다고 한다. 인터넷이라는 자유공간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오르내리던 누리꾼들의 글에 의해 죽었다. 안재환씨의 죽음에는 사채 빚이라는 돈과 관련한 현실적 문제가 숨겨져 있었다. 또 장자연씨의 죽음에는 연예계 뒷소문인 술집대와 성상남 문제가 떠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 그의 죽음은 현실정치권력과 사법권력, 그리고 수구 언론권력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들의 죽음에 자살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자꾸 거슬린다. 이유는 그들 모두 사회 부조리에 의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이야기들은 새로운 듯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들이었다. 해결해야 함을 알았지만 해결치 않는 문제들이었다. 그렇다.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고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회 구조의 문제였다. 이는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는 문제였고, 어떻게 보면 득이 가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바라만 봤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침묵은 간접적인 동의로 해석되기 마련이다. 방관과 침묵, 결국은 비정의 앞에 수긍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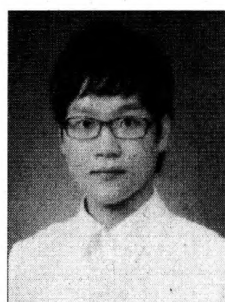
대학도 침묵했다. 사회를 가장 혁신적으로 이끌어야 할 대학생들이 취업과 개인적인 이득 앞에 사회문제를 외면했다. 촛불집회 등의 사회문제와 관련한 행사에 있어서도 대학생들은 다른 세대들보다 적극적이지 못했다. 모두 실리를 위해 정의를 저버린 결과이다.

노무현과 장자연, 안재환, 최진실 그리고 그 외의 희생된 사람들, 그들을 죽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또 앞으로 누구를 더 죽일런가. 죽어야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일까.

박중건 편집장

독자기고

몰염치한 도서관 자리잡기 그만



강형철 수학교육 3

별써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체육대회 등의 바쁜 나날들을 보내며 행복한 5월 달을 마치고 1학기의 마지막 6월을 맞이하게 되었다. 6월은 제주대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가 한 학기동안 배운 것을 정리하며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 시기다. 즉, 이제 곧 시험기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 시기의 도서관을 생각하면 공부도 하기 전에 머리가 아파온다.

공부할 공간, 자리다툼 때문에 전쟁을 치르다 보면 녹초가 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한번씩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자리독점 문제

는 항상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학생회와 각 단대 학생회분들이 분투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 보통 정해진 시간에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엔 학생회분들이 다른 학우들을 위하여 물품을 도서관 혹은 각 단대 독서실에 앞의 정해진 곳에 물품들을 옮겨준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 임시로 쌓아놓은 물품들은 미관상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길을 막아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한다. 또 옮겨온 물품들은 도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물품들의 관리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 이 시점부터 이를 해결할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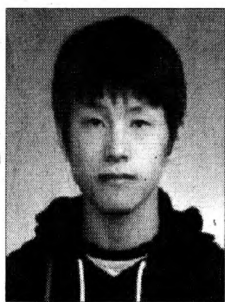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처럼 실시간으로 자리를 학생증으로 등록하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혹은 각 책상에 자신의 외출시간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의도는 좋으나 실제로는 학생들이 여전히 자리에 책을 놓고 다니는 등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기껏 줄을 서서 자리를 맡았는데 다른 사람의 책이 있는 것을 보고 꺼림칙 한 기분으로 공부할 하곤 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한 학생이 5~6개의 학생증을 들고 친구들의 자리를 맡아 두는 모습을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이번 기말고사 시험기간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특히 총학생회가 공약으로 내세운 도서관 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돼 올바른 도서관 사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또 제주대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가 ‘내가 먼저 공중도덕을 지키자’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한다. 학우 여러분 모두가 기본 좋게 서로에게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는 웃음의 메시지를 보내며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독자기고

이러닝센터 서버 문제, 응시생들만 분통



장경호 경영학과 2

지난달 24일은 제주대학교 이러닝 교양교육인 ‘제주4.3의 이해’의 수시고사가 있는 날이었다. 당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접속하여 10분간 시험을 보는 방식이었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시험이 시작한 시간부터 종료된 시간까지 이러닝센터 홈페이지가 마

비되었다. 사실 이러닝 교과목을 수강해본 학생이라면 몇 번 쯤은 겪어본 흔한 일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대개 시험시간을 연기하고는 한다. 시험을 보는 날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에 보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 약속이나 꼭 참석해야 하는 행사 역시 주말에 많지 않은가? 그래도 시험을 보기위해 약속을 취소하거나 참석하지 않고 접속하였는데 시험을 보지 못하면 연장을 수 밖에 없다.

앞전때 뒤흔쳐왔던 연기된 시험일에 중요한 선약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난감할 수밖에 없다. 한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닝센터 자체의 서버 문제이기기는 하지만 사전에 약속한 공지대로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 입장에서나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 입장

에서나 최상의 그림이 아닐까 싶다.

현재 제주대학교 자유게시판 검색창에 ‘이러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대부분 시험을 보기 위해 이러닝 센터에 접속했으나 서버마비, 서버이상으로 시험을 치루지 못한 학생들의 문의 및 항의를 알 수 있다. 이는 이러한 현상이 단발성이 아닌 매학기 되풀이되는 골칫거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으나 학교 측에서 서버 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특히 특정과목의 시험이 있는 경우 서버다운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

제주권역 대학이러닝지원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았고 이러닝 수업을 듣는 학생만 해도 2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고 문제점들이 개선되었지만 나처럼 속사정 모르는 평범한 학생들은 그저 불편한 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불만을 토로하는 법이다.

이러닝은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만 있으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표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가뭇에 단비 같은 존재다. 이러닝의 도입 목적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되풀이되는 문제제기에도 해결될 기미가 없다면 작지만 잦은 잠은 계속일 아닐까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여련면에 게재하고, 독자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ark12@jeju.ac.kr 홈페이지 http://www.cnuexpress.com

◇ 조총련 교토지부 국제 통일부 부장 이모씨

“소통과 교류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

민단도 총련도 재일 코리안은 하나

오사카의 총련 사람들을 만난 취재팀은 교토로 향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교토의 총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총련교토지부 국제 통일부 부장인 이모씨(37)는 조직보호 차원과 신변 안전을 위해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거부했고, 익명을 요구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교토의 조선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일본에서 조선학교가 많은 순서를 보자면 가장 많은 곳이 오사카이고 그 다음으로 효고현, 동경, 교토 순이다. 교토의 조선학교 학생수는 유치원까지 합쳐서 약 600여명 정도 된다. 교토에는 초급학교 3곳과 중급학교가 1곳 있다”

— 총련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우선 일반 일본 시민들은 총련이나 민단에 대해 모른다. 다 같은 한국인으로 본다. 총련 사람들은 식당이나 금융관련업, 빠정코나 토목 등의 건축 일들을 대부분 한다. 이 4가지가 가장 많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의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 직업도 많고, 일본회사에도 들어가는 것 같다. 이곳의 상공회 회장이도 빠정코를 한다. 열 다섯 개 정도 가지고 있다. 물론 기부 같은 것도 많이 한다”

— 총련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일본 학교를 다녔다. 대학생 때 학교에 조선문화 연구회란 곳이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말을 배웠고 당시 교수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조선문화연구회를 다니며 민족에 대해서 배웠다. 그리고 민족을 지켜야겠다는 싶어서 우리말을 열심히 배우고 총련일을 시작했다”

— 조선문화연구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면

“조선문화연구회는 다른 학교에도 있다. 관서대학 등이나 오사카, 효고, 교토 등에도 있다. 도쿄의 대학에는 3곳이 있고 교토의 경우는 6개 대학이 있다. 조선문화연구회는 일본 사람들도 있다. 한류의 영향이 어느정도 있는 것 같다. 그



이모씨는 6.15남북선언을 지키는 것이 통일의 기본 일반이라고 말했다.

리고 조선문화연구회는 대학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KOREA연구회라든가 한국연구회 등으로 말이다. 민단 사람들도 있으나 총련 사람들이 80% 이상이다. 말과 글, 문화나 역사 등을 배우고 남한 북한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그냥 한반도 전체를 다룬다. 여기서 정치적 성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 소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조직이 하고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본다. 일본 정부는 민단과 총련이 손을 합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일본 정치권의 압박도 있다. 일본은 자국민들에게 남한과 북한은 아예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라고 인식시켜려고 한다.

통일에 대해 말을 하려면 6.15남북선언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방법적인 것은 6.15선언을 기본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 기초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고들 하는데 사실 분단비용이 더 들어간다. 통일비용은 비용이 아니다. 투자다.

격정되는 것이 있다. 인터넷으로 남한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외래어가 너무

많다. 외래어도 외래어지만 외래어도 아닌 것 같은 이해가 가지 않는 말들도 있다. 이해하려고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나와있지가 않다. 민단 사람들도 우리말을 거의 못한다. 만나면 일본어로 이야기한다. 지금 우리말 통일을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난 이것을 매우 기다리고 있다”

— 이제까지 만난 총련 사람 중 교사를 제외하고 가장 젊다. 젊은 층이 얼마나 되고 세대교체에 어려움은 없는가

“지역마다 다르다. 20대에서 40대 모두 분포돼 있고 30대가 가장 많고 20대가 가장 적다. 젊은 층이 많긴 하나 나이를 먹으며 탈퇴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걱정이다. 그래도 아직 젊은 층이 많기에 세대교체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 10년에서 15년후의 총련은 어떤 모습일 것 같은가

“민단도 마찬가지로 서로 교류나 소통이 부족하다면 벽에 부딪힐 것이라 본다. 총련은 많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세대교체 과정에서 민족성이 예전 같지 않다. 희박해지고 있다. 교류가 가장 중요할 것이며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분명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이효형 기자

◇ 히가시오사카 조선중급학교 예술발표모임을 가다

춤사위로 그려낸 분단의 아픔

민족교육 위해 매년 예술발표회 가져

취재팀은 일본에서 가장 큰 중급학교인 히가시오사카 조선중급학교가 예술발표모임을 한다고 하여 몇 차례 열차를 갈아타서 예술발표모임이 열리는 동오사카시민회관으로 향했다. 히가시오사카 조선중급학교의 학생수는 모두 380명 정도이고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중급학교다. 동오사카시민회관의 입구에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북적거리고 있었다.

이 대극장은 좌석이 천여석 정도 되는데 2층까지 모든 좌석이 만원이었다.

무대 앞에는 학생 오케스트라가 있어 모든 공연에 있어 연주를 하였고 무대 위에는 ‘나래쳐라! 조국하늘 향해’라는 글이 써진 붉은 현수막이 걸려져 있었다. 잠시 후 공연이 시작됐고 깜짝 놀랐다. 중학생의 학예회 정도로 알고 왔는데 공연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다. 마치 북한에서 온 전문공연단 같았다.

서막에서 ‘조국의 사랑은 파사워라’라는 학생들의 합창에 맞춰 무용부 학생들이 공연을 했다. 노래에서 수령님의 은혜라는 가사가 많이 나왔다. 나중에 느낀 것이지만 오프닝의 무대는 그 노래를 가르친 것이고 그 노래 가사가 그런 것일 뿐인 것 같았다. 또 공연 중간중간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내용 등이 나왔으나 그 주제는 남한을 공격적으로 보고 북한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 보다는 일본 안에서 우리 민족을 잊지 말자는 쪽이 더욱 컸다.

연극도 공연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후반부에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 여러 가지 내용의 연극이 있었으나 한 연극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말을 하고 우리 글을 쓰고 여기서 민족을 잃지 않으며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이란 말이 나왔을 때 나는 과연 ‘누구 덕분일까’에 집중하여 다음 대사를 들었다. “그것은 바로 피땀 흘려 학교를 세운 우리 부모님들과 학교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여러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외



지난 2월 21일 히가시오사카 조선중급학교 학생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뜻깊은 무대가 마련됐다.

쳤다.

젊은 세대들에게 주체사상 교육을 그다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들었지만 서막의 노래 외에 북한 정권과 수령님 덕분이라는 말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교포들이 이뤄낸 것이며 그들 스스로 그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느껴졌다. 그리고 모든 무용과 연극 등의 퍼포먼스에서는 모두 한반도기가 사용되었다.

올바른 한국어를 사용하자는 내용들도 있고 다양한 민족 타악기나 현악기들을 이용한 공연도 있었다. 연습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궁금하여 공연이 끝나고 관계자에게 물어보았는데 이 공연들은 방과 후에 따로 있는 체육, 예술수업에서 평상시에 배우는 것이고 오늘을 위한 집중 준비는 3주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이 정도 수준의 공연을 보인다는 것에 놀랐다.

여러 가지를 느꼈다. 조총련이 민단과 다른 성향이라고 해서 북한처럼 우리를 적대시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

만들어진 편견이었다. 총련이라고 모두 북한 출신 사람들은 아니고 남한 출신도 많으며 제주도 출신도 꽤 있다. 그들은 일본 안에서 민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후세를 교육시키고 있으며 북한에는 의지를 하지 않고 있다.

그저 자신들의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기대는 것이 북한일 뿐이고 그들에게 남한 북한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해 보였다. 적어도 내가 만난 총련 사람들은 그랬다. 자본주의 사회인 일본에 살고 있는 여러 교포들, 나이가 많은 어린 아이들이든, 북한의 주체사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가로서 기대는 부분이 북한이기에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우선시돼 보였다. 그들은 한반도기를 흔들면서 진정한 통일을 원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자긍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남한이나 북한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진정한 한국인이었다.

이효형 기자

Welcome to English Camp!!
생각만 해도 즐거운 영어캠프!

제주대학교 여름방학 초등영어캠프

제주대학교 초등영어캠프는 원어민과의 다양한 활동과 놀이를 통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자신감을 키워 영어실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익한 캠프입니다.

<캠프 특징>

-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20여차에 걸친 영어캠프 노하우
- 국립제주대학교의 최신 시설과 쾌적한 BTL 학생생활관(기숙사)에서 진행되는 안전한 캠프(원룸형 숙소(2인1실), 각 실별 화장실, 샤워실, 냉방시설 완비)
- 유능한 원어민과 함께하는 수준별 English Only Program
- 정규수업 외 문화, 퀴즈, 요리, 체육, 영화, 팝송, 역할극 등을 통한 다양한 주제별 영어학습
- 체험식 실생활 영어수업(Situation Class)
- 주말에 신나는 현장체험학습(Jeju Tour)
- 과정수료자에게 수료증, 메모리앨범 및 CD제작 수여

<참가자모집>

1. 모집인원 : 초등 90명
2. 모집대상 : 초등 3~6학년
3. 캠프기간 : 2009년 8월 3일 ~ 2009년 8월 14일(11박 12일)
4. 접수기간 : 2009년 6월 8일(월) ~ (입금자 선택순 마감)
5. 신청방법 : 영어캠프 홈페이지 <http://camp.jeju.ac.kr>(회원가입 → 참가신청 → 신청서작성)
6. 캠프참가비 : 950,000원(도의 참가자 항공료 별도)
7. 캠프장소 :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및 제주대학교 BTL 학생생활관
8. 캠프문의처 :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행정실
(☎ 064) 754-2291 ~ 2)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